

ISSN 2093-6044

한국이민학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Migration

2023년 제10권 제1호

Vol.10 No.1 2023

한국이민학회

Korea International Migration Studies Association

《한국이민학》은 사단법인 한국이민학회의 학술지로서 연 2회(매년 6월, 12월) 발간합니다. 논문 기고 자격은 원칙적으로 한국이민학회의 회원으로 제한하며, 학회원 가입과 관련한 내용은 우리 학회 홈페이지의 ‘회원가입안내’ 항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학술지 게재 논문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고 있으며, 원고 제출 및 작성 지침은 본지의 뒷부분에 수록돼 있습니다.

《한국이민학》의 정기구독을 원하는 개인과 단체는 다음의 주소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301호 한국이민학회 사무국

전화: 033-250-6874

전자우편: kimsaeditor@gmail.com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imnet.org>

《한국이민학》 2023년 제10권 제1호 편집위원회

편 집 위 원 장	송영훈(강원대학교)
편 집 위 원	김대근(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철효(경상국립대학교)
	문경연(광운대학교)
	박천웅(전북대학교)
	신지원(전남대학교)
	한승준(서울여자대학교)
간 사	최소림(강원대학교)
조 교	이바다(강원대학교)

한국이민학

2023년 제10권 제1호

일반논문

‘주권’과 ‘이주’의 연계에 관한 시론적 연구 한준성.....	7
10-20대 북한이주여성들의 토래관계 경험과 사회정체성 전주람 · 김유진 · 손인배.....	25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에서의 일상적 삶과 미래의 바람에 관한 포토보이스 김묘경 · 하진이.....	47

‘주권’과 ‘이주’의 연계에 관한 시론적 연구

한준성*

요약

이 글은 주권과 이주의 연계성에 관한 시론적 연구다. 주권은 성원권 정치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연구 주제로 ‘국민’과 ‘비국민’의 경계와 이들의 일상에 가하는 국가 영향력의 성격을 분석적으로 해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개념적 도구이다. 그간 사회과학 분야에서 이주의 문제는 주로 시티즌십 문제와 관련되어 논의되어왔다. 그런데 시티즌십의 발전은 주권의 제도화 방식과 긴밀하게 얽혀있다. 그런 점에서 ‘이주의 시대’에 시티즌십이 주권의 작동과 어떤 방식으로 맞물려 있는지를 해명하는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주권-이주 연계’와 관련한 쟁점을 인민의 범주, 통치의 주체, 인민의 민족화/국민화, 국가 주권의 신화와 갱신이라는 네 가지 주제로 살펴본다. 이 글은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주권 개념이 담론적 자원으로서 갖는 비판적/해방적 기능에 주목하면서 이주민과 난민을 ‘타자’가 아닌 ‘관점’으로 이해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핵심 단어: 주권-이주 연계, 시티즌십, 국민, 민족, 인민

* 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조교수

▪ babaro79@gmail.com

I. 들어가는 말

이 글은 ‘주권(sovereignty)’과 ‘이주(migration)’의 연계성에 관한 시론적 연구다. 주권은 성원권 정치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연구 주제로 ‘국민’과 ‘비국민’의 경계와 이들의 일상에 가하는 국가 영향력의 성격을 분석적으로 해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개념적 도구이다. 그런데 그간 사회과학 분야에서 이주의 문제는 주로 시티즌십 문제와 관련되어 논의되어 왔다. 그렇지만 시티즌십의 발전은 주권의 제도화 방식과 긴밀하게 얽혀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주의 시대’에 시티즌십이 주권의 작동과 어떤 방식으로 맞물려 있는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 탐색적 연구로서 먼저 1980년대까지 사회과학 분야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한 주권에 관한 논의가 1990년대 들어서 재점화된 이유를 살펴보는 동시에 그런 상황에서도 주권과 이주의 연계성에 관한 관심이 여전히 낮은 이유를 제시한다. 이어서 주권-이주 연계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주권-이주 연계와 관련된 쟁점을 인민의 범주, 통치의 주체, 인민의 민족화/국민화, 국가 주권의 신화와 갱신이라는 네 가지 주제로 살펴볼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주권 개념이 담론적 자원으로서 갖는 비판적/해방적 기능을 긍정하면서 이주민과 난민의 위치에 주목하고 이들을 단순히 ‘타자’가 아닌 대안적 ‘관점들’로 이해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II. 재점화된 ‘주권론’과 ‘주권-이주 연계’에 관한 저조한 관심

사회과학, 특히 정치학 분야에서는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주권(sovereignty)’ 개념이 좀처럼 주목받지 못했다. 국제법이나 외교사 연구자들이 주권에 관한 논의를 이어왔으나 정치학 분야 전반에서의 관심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힘/권력(power)이나 권위(authority)와 같은 개념을 주요 주제로 다루어 온 학문 분과인 정치학에서 이처럼 주권 개념이 관심 영역에서 주변화되어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를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먼저 현대 정치학에서 주권 개념은 연구 주제로서의 독자성을 갖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그 무엇으로 인식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레고리 화이트(Gregory White)에 의하면 1980년대에 들어서 국제관계학 분야에서는 이른바 신(新)현실주의가 지배적인 담론이 되었고, 그런 학문적 풍토 속에서 베스트팔렌 체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국제질서 환경으로 받아들여졌다. 결국 이러한 학계의 분위기 속에서 주권 개념이 특별히 주목받을 만한 동인을 찾기가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White, 2007: 693). 그러다 보니 주권 개념이 그 자체로 독자적인 영역을 갖는 연구 주제로 발전하기는 어려웠고, 근대국가 발전에 관한 연구에서 부수적인 개념 정도로 다뤄지는 수준에 그쳤다(황영주, 2009: 186). 스티븐 크래스너(Stephen Krasner)의 설

명도 이러한 평가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는 1988년에 출간한 연구논문(“Sovereignty: An Institutional Perspective”)에서 미국 정치학계에서는 주권이 연구 대상으로서의 의미와 분석적 개념으로서의 적합성 모두를 상실하였고 학자들이 주로 논구하는 개념은 주권이 아니라 ‘국가(the state)’나 ‘정치체(a polity)’가 되었다고 토론했다(Krasner, 1988). 그의 이러한 평가는 1990년대 이전의 주권 개념에 대한 학계의 저조한 관심도를 잘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권이 학문적 담론의 주요 주제가 되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주권 개념 자체의 한계 내지는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관련된다. 스콧 고든(Scott Gordon)의 논의는 이 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는 주권 관련 연구사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그간 주권 개념에 대해 제기된 비판을 세 가지 논의로 분류한다. 물론 아래 제시하는 세 가지 비판 논리가 주권 개념에 관해 제기된 모든 비판 논리들을 다 아우른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또 다른 다채로운 비판의 논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 가지 부류의 비판 논리의 변형되거나 발전된 형태의 논의라고 볼 수 있다(Gordon, 1999: 53-59).

첫 번째 비판은 주권을 정치권력(political power)의 문제와 관련짓는다. 논리의 전제는 다음과 같다. 주권 문제는 그것의 최종적 소재지(locus)에 관한 물음을 내포하는데 정치권력이 국가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들 사이에 복잡한 방식으로 배분된 현실을 고려할 때 주권의 소재지를 명료하게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는 것이다. 바로 그렇기에 주권을 전면적으로 주제화한 논의는 비생산적이고 무용한 논의가 될 공산이 크고, 그런 점에서 이러한 소모적인 논의를 이어가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이 첫 번째 비판론의 요지다.

두 번째 비판 논리는 자유민주적 헌정질서에 기반한 국가에서는 ‘결사의 자유’ 원리에 기반한 다원성의 발현으로 주권의 단일한 소재지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첫 번째 비판과 마찬가지로 주권의 소재를 문제시하면서도 정치권력의 배분에 초점을 두는 대신 자유주의 헌정질서의 원리를 강조하는 논리다.

세 번째 비판 논리는 주권 개념에서 연상되는 절대성 내지는 초월성을 문제시한다. 자크 마리탱(Jacques Maritain)의 논의가 대표적이다(Maritain, 1950). 그는 기본적으로 초월적인 절대성을 전제로 한 주권 개념이 전체주의적 색채를 띤 통치의 정당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더는 국가와 주권을 연계시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the state)는 영토적 관할권 내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지만 주권과는 달리 초월적인 권위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하지만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정치학을 중심으로 학계 내에서 주권 개념이 주된 관심사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모는 무엇보다도 세계화의 심화와 냉전의 종식이라는 국제정세의 변화를 배경으로 한 것이다. 글로벌 경제와 안보 면에서 전개된 변화 속에서 국제체계의 특성을 둘러싼 열띤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주권(state sovereignty)’이 주요 논점으로 부상한 것이다(White, 2007: 693). 또한 변모된 글로벌 환

경 속에서 초국적인 인간 이동성, 그 가운데 특히 국제노동이주가 주요 연구 주제로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주권’과 ‘이주’라는 두 가지 연구 주제의 밀접한 관련성에 대해서 말하자면, 먼저 두 연구 분야 모두 세계화의 심화와 탈냉전의 여파 속에서 ‘비국민(non-citizen)’에 대해서 국가가 행사하는 영향력이 어떻게 변화·변용되는지에 주목했다(White, 2007: 691). 이는 주권의 문제가 곧 이주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서 국가주권 시스템은 국가가 비국민의 자국 영토 입국이라든지 영토적 관할권 안에 거주하는 이방인의 성원권(membership)을 통제할 수 있는 정당한 권위를 갖는다는 논리를 전제로 한다(Demo, 2005: 292).

하지만 상호 연계성이 높은 연구 주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주권과 이주의 연계를 전면 주제화된 연구는 제한적인 편이다. 이와 관련하여 화이트는 국제관계 분야에서 주권 문제를 다룬 연구자들은 초국적 노동 이주를 적극적으로 다루려 하지 않았고, 이주 연구 분야에서는 주권 개념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국가주권의 시험대가 될 수 있는 여러 현상 가운데 초국적 노동 이주야말로 가장 도전적인 사안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이주-주권 연계에 관한 저조한 연구는 의아한 현상이라고 보았다(White, 2007: 697).

그렇다면 주권과 이주의 연계가 충분히 주목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 혹자는 연구사적으로 볼 때 두 주제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오래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충분한 이유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며 보다 근원적인 이유가 해명될 필요가 있다. 그레고리 화이트와 크리스티안 욥케(Christian Joppke)의 논의는 그 이유를 추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White, 2007; Joppke, 1998).

화이트는 주권과 이주를 각각 ‘고위 정치(high politics)’와 ‘저위 정치(low politics)’의 주제로 바라보는 연구 경향을 문제시한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주권은 주로 전쟁, 국가안보, 외교, 현실정치(realpolitik)를 비롯한 ‘고위’ 정치의 사안과 관련되어 논의되었고, 이주는 경제학, 인류학, 사회학 분야를 중심으로 ‘저위’ 정치의 사안으로 다루어져 왔다. 특히 이주 관련 연구 분야에서는 이주의 동기에 대한 미시적 수준의 분석을 넘어서 초국적 이주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이나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미시 수준을 벗어난 연구의 경우에도 목적국 내에서의 이주민 경험과 이들의 사회적 연결망에 주된 관심을 두고 있으며 국경 문제나 영토성과 관련된 사안을 주제화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었다(White, 2007: 697). 물론 9/11 이후 주권 관련 연구에서는 테러리즘과 비국가 행위자에 관한 학문적 관심이 증대했고, 국제이주 관련 연구에서는 비정규 이주와 이주의 안보화와 관련된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그러면서 이주 관련 이슈들이 영토성과 성원권 관리와 같은 주권 관련 사안들과 밀접한 관련성의 맥락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러한 연계의 시도가 안보 위주의 담론으로 표출되면서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과 정작 정치학 분야에서는 이러한 연계 논의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욥케의 논의를 살펴보자. 그는 ‘주권-이주’ 연구사에 대한 분석적인 검토를 위해

먼저 '국민/민족 국가(the nation state)' 개념을 국가(the state)와 국민/민족(the nation)이라는 두 가지 구성 요소로 구분한 뒤 주권과 시티즌십을 각각 국가와 국민/민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국제이주가 분명 주권과 시티즌십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정치학계의 이민 연구에서는 주권에 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시했다. 이주 현상에 관한 거시 사회학적 설명에서 시티즌십 개념과 비교할 때 주권 개념이 좀처럼 주요한 분석 개념으로 제시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부언하면 윽케는 이러한 모습이 이민 연구 분야의 본질적인 특징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았다(Joppke, 1998: 9). 이를테면 국제관계 전문가나 법학자가 이민 관련 이슈를 '국가주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맥락에서 바라보는 경향을 보였다면 사회학자와 정치학자는 이민 문제를 '시티즌십에 대한 도전'이라는 또 다른 맥락에서 이해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즉, 학문 분과에 따른 연구적 관성이 작용한 탓도 있다는 의미다.

III. 주권-이주 연계 논의의 필요성과 유용성

사회과학 분야에서 주권에 관한 논의의 중요성 내지는 필요성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특히 국제이주, 즉 초국적인 인간 이동성과 관련한 논의에서 주권 개념의 중요성 내지는 필요성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본 장에서는 이러한 물음에 대한 나름의 답을 제시해봄으로써 사회과학 분야, 그 가운데 특히 정치학 분야에서 주권과 이주의 연계에 관한 적극적 관심의 필요성과 그 시의성을 짚어보고자 한다.

한동안 주권 개념은 국가의 대내적 측면, 특히 통치(governing)의 문제와 관련해서 학문적으로 주목할 만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앞선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주권 개념과 관련하여 제기된 비판은 여러 갈래로 나뉘면서도 한 가지 한계점을 공유하고 있다. 주권 개념에 대해 아무리 날 선 태도를 보이더라도 종내에는 탐색적 개념으로서 주권을 대신할 만한 개념이나 사고의 틀을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Gordon, 1999: 58).

나아가 주권 개념이 여전히 정치 현실에 대한 분석 개념으로서 유용성을 갖고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브와디스와프 스타нки에비치(Władysław Józef Stankiewicz)의 논의가 대표적이다. 그는 주권 개념에 대한 비판론의 근거에는, 주권 개념이 상정하는 '최고 권위(supreme authority)' 관념이 현대 민주주의 이론 내지는 자유주의 헌정주의에 잘 조응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점을 이해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러한 입장이 곧장 정치 담론에서 주권 개념을 걷어 내자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Gordon, 1999: 58).

이상의 논의가 주권론에 대한 소극적 옹호라고 한다면, 주권 개념을 적극적인 방식으로 수용하려는 입장도 있을 수 있다. 우선, 주권 논의는 '정치적 권위'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주권론은 주권의 소재지에 대

한 물음을 함축하며 바로 그렇기에 주권에 관한 논의는 ‘주권적 권위, 즉 국가 내에서의 최고의 권위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물음에 끊임없이 답해야 하는 과제를 제기한다.¹⁾ 나아가 정치적 권위의 문제로서의 주권에 대한 논의는 정치적 정당성, 이를테면 인민주권(popular sovereignty)의 경우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동일화에 기초한 통치의 정당성에 관한 논의이기도 하다.²⁾ 이런 의미에서 근대국가에서 주권은 ‘힘/권력(power)’과 ‘정당성(legitimacy)’의 특유한 결합이라고 말할 수 있다(황영주, 2009). 요컨대 주권에 관한 논의는 통치(government)의 정당화, 즉 국가의 통치 행위에 대한 국민의 지지, 의무, 동원 창출과 깊은 관련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통치의 정당성 문제와 관련해서 주권 개념이 갖는 분석적 유용성은 그것이 ‘법’과 ‘관료제’에 관한 논의의 이론적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황영주, 2009). 실제로 주권 관념은 법의 근원으로 작동하면서 관료제를 뒷받침하는 공법(public law)의 발전을 가져왔으며, 법과 관료제의 발전은 영토적 관할권 내에서 폭력을 독점한 국가의 통제 역량 확대로 이어졌다. 이렇듯 주권 개념은 이론적, 역사적으로 법과 관료제와 긴밀한 함수관계를 맺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사고는 더욱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로 연결된다. 바로 주권의 문제가 ‘국민’과 ‘비국민’의 경계와 이들의 일상에 가하는 국가 영향력의 성격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점이다. 황영주가 지적했듯이 “시민권은 일면 국민들에 대한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다 큰 주권의 작동, 말하자면 정확하면서 분명한 정치적 소속감을 만들어 내면서, 동시에 구성원들에 대한 의무를 함께 만들어내고 있다”(황영주, 2009: 200).

이 점은 주권과 이주의 연계를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주권 개념이 성원권(membership)에 대한 국가의 관리 및 통제와 긴밀하게 결부되어있기 때문이다. 앞 장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그간 이주의 문제는 대체로 시티즌십 문제와 관련되어 논의되어왔다. 그렇지만 전술한 것처럼 주권 논의가 성원권/시민권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크래스너도 강조했듯이 역사적으로도 시티즌십의 발전과 확장은 ‘주권의 제도화’와 긴밀하게 얽혀있다(Krasner, 1988).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주의 문제를 주권 논의와 연계하여 분석하는 시

1) 역사적으로 이러한 물음은 그에 대한 답으로 일종의 정치적 프로젝트를 요청한다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장 보댕(Jean Bodin) 이래로 주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정치적 프로젝트로서 등장했다. 역사에서 부상한 주권론들은 정치적 권위가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목적에서 등장하곤 했다.

2) 영어로 popular sovereignty는 우리말로 ‘국민주권’으로 번역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두 가지 이유로 이를 ‘인민주권’으로 번역한다. 첫째, ‘인민(人民)’이라는 단어가 불온시 되어온 이유의 근거가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 헌법학자 유진오(1906-1987)는 “인민이라는 말은 구대한제국 절대군주제 하에서도 사용되던 말”이었고,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인민을 의미하므로, 국가우월의 냄새를 풍기어 국가라 할지라도 합부로 침범할 수 없는 자유와 권리의 주체로서의 사람을 표현하기에는 반드시 적절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인민 대신 국민을 쓰게 된 것을 두고 “결국 우리는 좋은 단어 하나를 공산주의자에게 빼앗긴 셈”이라고 토로한 바 있다(박명규, 2009: 109 재인용). 최장집은 『한국민주주의의 이론』(1996)에서 남북 체제경쟁의 여파로 people의 “번역어인 ‘인민’이라는 우리말은 북한말처럼 인식되어 오해를 피하기 위한 대응어로서의 민중을 사용”하였다고 설명했다(최장집, 1996: 43). 물론 여전히 분단이 지속되고 있으나 체제경쟁의 정도와 성격은 동서냉전 시기와 달라졌다. 더욱이 ‘인민’이 ‘국민’에 비해 번역어로서 그 적합성이 크고 향후 남북 간 주요 학술 개념 용례의 차이로 인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인민주권’으로 번역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 둘째, 유진오의 지적처럼 ‘국민’보다는 ‘인민’이 공동체의 구성원임과 자유와 권리의 주체로서의 개인성을 모두 아우르는 표현으로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헌법적 주체에 대한 명명으로 ‘국민’에 비해 더 적합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도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또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주의 시대'에 시티즌십이 주권의 작동과 어떤 방식으로 맞물려 있는지를 해명하는 연구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주권의 문제와 관련해서 법과 관료제의 발전이 이주민의 체류자격 및 법적 권리를 비롯해 전반적인 성원권 체제와 맺는 관계를 주제화할 수 있다. 이처럼 주권은 이주의 맥락에서 국가의 성원권 정치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유용한 분석적 개념이 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필자는 주권 개념을 통치나 통제의 기제로 환원시키는 접근에 함몰되지 말고 그것이 하나의 담론적 자원으로서 갖는 비판적/해방적 기능에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잠시 주권 회의론으로 돌아가면, 주권 개념에 대한 비판적 논의의 핵심 주장들 가운데 하나는 주권론은 주권에 관한 신화적 상상에 불과하며 주권의 궁극적 소재지를 절대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주권론을 단순히 신화적 상상으로 치부하는 이러한 입장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바로 주권의 절대적 소재지의 '부재'가 오히려 해방의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인데 앞선 회의론은 좀처럼 이 점에 주목하지 않았다. 주권 개념은 (고정불변의 절대적 권위가 아닌) 특정 시공간을 맥락으로 한 정치적 권위에 기반을 둔 사회 조직화 양식, 혹은 통치의 정치적 정당성에 대한 간단없는 비판적 물음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실제 서구 역사에서 주권론은 그 근처에 주권의 '자리'를 둘러싼 사회 세력들 간의 투쟁의 역사를 깔고 있다. 이것은 종언을 고할 수 없는 역사적 과정이다.

이런 의미에서 주권론을 검토하는 것은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이해하거나 주권론 자체가 지배 세력에 의해 전략적으로 전용되고 있는 지점, 즉 지배와 통치의 전략을 들추어내려는 시도라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광의의 사회운동적 성격을 갖는 해방적 작업이기도 하다. 특히 현대 민주주의 체제에서 주권 개념은 정의롭지 못한 통치에 맞설 수 있는 '시민의 무기'이기도 하다. 피치자(the ruled)의 위치에 있는 시민에게 '주권' 개념은 정치권력이 얼마나 민주적으로 책임 있게 행사되고 있는지를 판별하는 규범적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나아가 이 글의 문제의식에 비추보면 주권에 관한 이와 같은 사고의 외연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주의 시대에 등장한 또 다른 피치자 시민 집단인 이주민/난민의 처우와 권리를 아우를 수 있다. 이를테면 이주의 맥락에서 '인민주권(人民主權)'이 '국민주권(國民主權)'의 형태로 제도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인종이나 계급과 관련된 문제들을 쟁점화할 수 있다.

IV. 주권-이주 연계의 쟁점과 가능성

'인민주권' 이념은 그것이 품기는 인상과는 달리 민주정(democracy)에만 적용될 수 있는 체제 특수적인 정치적 교의가 아니다. '이념'과 '체제'는 엄연히 구분된다. 군주정(monarchy)이나 귀족정(aristocracy)에서도 인민주권을 정치체의 구성 원리로 한 통치가 이

뤄질 수 있다. 그렇지만 오늘날 전 세계 절대다수 국가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현대 정치에서 인민주권의 원리는 민주주의 체제와 거의 배타적인 방식으로 결부된 것으로 상상된다. 이런 의미에서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지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인민주권의 정치적 교의를 정치체 구성의 근본 원리로 삼고 인민의 ‘자기통치(self-rule)’를 지향하며 정부 조직과 운영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인민주권 관념과 이에 기반한 통치 양식은 세계화와 불평등, 그리고 분쟁과 전쟁 등으로 인한 초국적 인간 이동성의 규모와 속도가 점증하면서 의문과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하에서는 이 점에 주목하여 현대 민주주의에서 국제이주와 다양성 증대가 기존의 인민주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딜레마 내지는 쟁점을 낳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누가 ‘인민(the people)’인가?: 범주의 딜레마와 인습적 사고의 탈피

이주의 확대와 심화는, 특히 그 가운데 장기체류자의 증대는, 인민(the people)의 범주 내지는 성격에 관한 ‘불편한’ 물음을 던지게 한다. 물론 인민의 범주에 관한 논의가 최근에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인민 개념의 외연이 재산, 성차, 인종을 비롯한 여러 절렬들을 철폐해 나가면서 그 경계가 꾸준히 확대되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한 국가에서 정치권력의 궁극적인 소재지는 국가의 법과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라는 주장의 점진적이고 때로는 급격한 자기실현의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 역사적 과정은 인민주권 교의 자체에 대한 물음이었다기보다는 ‘인민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라는 물음을 둘러싸고 벌어진 사회적 투쟁의 축적이었다(Turner, 1997).

이러한 장기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세계화와 불평등 그리고 전쟁과 분쟁에 따른 초국적 인간 이동성의 급격한 증대는 그러한 역사 과정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주와 다양성 증대로 인민의 범주와 성격에 대한 물음이 재점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전의 물음의 단순한 반복이 아니다. 오늘날 초국적 이주와 이로 인한 다양성의 증대는 ‘국민/민족 국가(nation-state)’ 관념과 이에 근간한 통치 양식에 대한 근본적인 반추의 필요성을 낳고 있다. 다시 말해서 초국적 이주의 확산과 종족문화적 다양성의 심화는 ‘국민/민족 국가’라는 인식의 틀 속에 자리 잡아 왔던 ‘인민’ 관념에 대한 정치적 상상의 갱신 내지는 재규정에 대한 요청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치철학자 장 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의 표현을 빌리면 ‘일반의지(general will)’의 갱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는 셈이다.

또한 이러한 인식은 다음과 같은 일군의 물음들로 이어진다. 혈통주의와 민족 관념이 뿌리 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성원권 제도나 사회정책 등으로 상당한 수준으로 제도화되어있는 조건에서 초국적 이주의 배경을 갖는 사람들, 특히 장기체류하여 사실상 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난민(의 시선)은 ‘인민’의 경계를 어떤 측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시할 수 있는가? 기존의 인민 범주에 포함된 개인/집단과 인민 범주의 바깥에 놓인 개인/집단에

대해서 국가와 사회는 성원권 배분에 있어 어떤 요소들을 새롭게 고려해야 하는가? 초국적 이주로 인한 다양성 증대에 직면한 국가는 인민주권 원리를 어떻게 새롭게 법적, 제도적으로 표현할 것이며, 이러한 대응을 뒷받침하는 국가의 행정은 어떻게 재편되어야 하는가? 인민주권을 이주/다양성의 맥락에서 포용적으로 재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인민의 외연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는 한 여전히 법적 경계의 바깥에 놓인 이주배경인들이 존재할 텐데³⁾ 이러한 '범주의 딜레마'는 또 다른 윤리적 요청을 낳지 않겠는가?

이러한 물음은 모두 이주의 현상이 우리에게 던진 '누가 인민인가'라는 대질문의 파생적 물음들이고 우리는 손쉽게 이 물음들을 피해 갈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 내에서 상대적으로 주변부에 놓인 이주배경을 지닌 사람들, 특히 이주노동자와 난민 그리고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의 '위치(positions)'에서 인민 관념에 관한 인습적인 사고를 달리할 수 있는 자기 해방적이면서 계몽된 상상의 힘이다.

2. 누가 통치하는가?

현대 민주주의의 조건에서 '인민주권' 이념의 전면적인 실현은 기대하기 어렵다.⁴⁾ 그런 점에서 흔하게 일컬어지는 '대의민주주의' 대 '직접민주주의' 내지는 '대표'와 '참여'의 이분도식은 사실상 정치적 담론 영역에서 사용되는 수사나 논법의 수준을 넘어서 분석적인 엄밀성을 지닌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버나드 마넌(Bernard Manin)이 갈파했듯이 오늘날 민주주의 운용의 지배적인 특징은 '대의 통치(representative government)'에 있다. 그는 대의 통치가 각 사회가 처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조건과 역사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변형태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Manin, 1997).

이같은 대의 통치의 맥락을 이주민의 정치 참여와 관련지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주민의 체류자격과 법적 권리를 비롯한 성원권 문제에 대한 구체 심의와 결정은 인민의 자기 결정이라기보다는 입법기구와 행정기구, 정치인과 관료에 의해 이루어진다.⁵⁾ 이러한 현실은

3) 하나의 '정통'으로서 인민의 탄생 내지는 발명은 결과적으로 사회 내 잔여 집단을 비(非)인민이라는-아무렇게나 이름 붙일 수 있다는 점에서-무명의 '이단'으로 만들어 낸다. 이는 일종의 '범주의 딜레마'라는 문제점을 시사하는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해소될 수 없는 문제다. 그렇지만 범주의 딜레마가 갖는 더욱 중요한 함의는 다른 곳에 있다. 그것은 어느 사회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이단은, 혹은 이단이야말로 '정통'에 대한 '해독제'라는 사실이다(Turner, 1986: 114).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의 일상 담론 속에서 호명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이단들을 그들이 처해 있는 관계성의 맥락 속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4)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점을 밝혀둔다. 첫째, 앞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인민주권의 정치적 교의는 반드시 민주정과 배타적으로 조응하지 않는다. 군주정과 귀족정 역시 인민주권의 정치제도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버나드 야크가 잘 설명한 것처럼 인민주권론이 단지 절대적 권력에 대한 군주의 요청에 대해서 뿐 아니라 민중의(popular) 요청에 대해서도 반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Yack, 2001: 519). 둘째, 최근 고전적 민주주의의 논의와 실천 가운데 필요한 부분을 차용하여 그것의 현재적 제도화 방안을 다룬 논의가 등장한 바 있다. 대표적인 예로 '공론' 형성의 제도화 과정에 관해 논한 브루스 애커만과 제임스 피쉬킨의 논의(Ackerman and Fishkin, 2003)를 참고할 수 있다.

5) 인민주권의 교의와 대의 통치의 현실의 간극이 갖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바로 그러한 간극으로 인한 정치의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즉, 현실적으로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민은 정치적으로 대표될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렇기에 정치 영역에서 자율적 공간이 마련되는 것이기도 하다. 대표관계는 반드시 대표자와 피대표자 사이의 동질성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며, 이들 간의 역동적 교호 작용으로 인한 정치의 가능성이 열리기도 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물음들을 낳는다. ‘실제로 누가 통치하는가?’ ‘이민정책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자는 누구인가?’ 초국적 이주와 종족문화적 다양성은 오늘날 대의 통치 시스템하에서 인민주권에 관한 근본적 물음이 제기될 때 그 물음이 닿아 있는 첨예한 현실 일부를 구성한다. ‘인민’과 ‘이주’를 연계하는 시도가 중요한 이유는 이주민/난민도 사회적 성원으로서 통치에 관한 자신의 몫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연계적 사고가 중요한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다. 그것은 이주민의 사회구조적 위치성이 그 사회의 성원권 레짐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시야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주민과 난민을 ‘타자(the other)’가 아닌 ‘관점(perspective)’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까닭이다.

이러한 사고는 인민의 자기통치 관념과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 물음과 잇닿아 있다. 첫째, 이주민과 난민을 주권자이자 자기통치의 주체인 ‘인민’의 일부로 볼 여지가 있는지, 있다면 인민의 상은 어떻게 재규정되는가라는 물음이다. 둘째, 이민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엘리트주의를 벗어나 다양한 ‘국민’의 의사가 얼마나 실효적으로 반영되는가라는 물음이다. 첫 번째 물음이 이주민/난민의 헌법적 기본권 주체성과 관련된 것이라면, 두 번째 물음은 이주민/난민의 처우 및 권리에 관한 정치공동체의 집단적 자기 결정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대의 통치 시스템, 혹은 마넩의 표현을 빌리면 ‘청중 민주주의(audience democracy)’의 조건에서는 주권-이주 연계와 관련하여 인민의 자기통치 문제가 좀처럼 합리적인 공적 토의의 주제로 다뤄지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모습은 인민 개념에 대한 고도의 추상화 내지는 이론화에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역사의 무대에서 인민(the people)은 크게 세 가지 상(像)으로 등장했다. ‘저항의 주체’, ‘통치의 주체’, ‘헌법제정권력(constituent power)의 담지자’의 모습이다. 이 가운데 헌법제정권력을 갖는 인민의 상은 개념적으로 가장 추상화된 형태이다. 개념사적으로 보면 루소가 ‘일반의지’의 담지자로 묘사한 인민은 얼마 뒤 에마뉼엘 시에예스(Emmanuel Joseph Sieyès)에 의해 헌법제정권력의 담지자로 재표상되었다.⁶⁾ 그렇지만 이러한 인민의 상은 몇 가지 문제점을 낳았다. 우선 지나치게 추상화되어 그 자체의 확장성을 논구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거나 어렵다. 또한 정반대로 인민 개념은 특정한 국면에서 정치 세력들 간에 경쟁적 가치가 되어 사회 갈등과 분열, 혹은 강권 통치의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더욱이 인민을 이처럼 추상적인 수준에서 논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저항’과 ‘지배(rule)’의 주체로서 인민이 갖는 실체성이 희석될 수 있다. 이주 문제와 관련해 보면 이주민/난민과의 공존, 공생을 위한 인민의 민주적 지향과 실천, 혹은 이주민/난민이 정치적으로 새롭게 상상된 인민의 일부로 포함될 수 있는 민주적 가능성과 시도들이 논의의 중심에서 밀려나게 될 수 있다는 말이다.

6) 루소가 대표 시스템에 대해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정작 인민의 자기지배의 방안에 대한 구체적 응답의 요청을 회피하였다면, 시에예스는 민주주의의 고전적 이상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헌법제정권력에 기초한 인민주권론으로 풀어냄으로써 민주주의의 이상과 대표체제를 모두 포괄하는 이론을 구상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민족(nation)’으로 표상된 ‘인민(people)’, ‘국민(國民)’화된 ‘인민(人民)’

앞 절에서 잠시 언급했던 인민의 세 가지 상을 다시 떠올려 보자. 버나드 야크가 적절히 설명한 바와 같이 전통적 인민 관념과 근대적 인민 관념은 사뭇 다르다. 물론 이러한 사실이 전통적 인민 관념이 오늘날 완전히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전통적인 인민의 상은 다중 내지는 다수로서의 인민으로 그려지면서 법철학적/정치철학적 의인화에 기반한 주권론을 뒷받침한다.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의 논의가 대표적이다(이경민, 2021: 96-98). 이와 비교해서 오늘날 인민주권 논의에서 인민은 통치 영역 내의 인구를 포괄하는 공동체(a collective body)라는 보다 추상화된 관념으로 연결된다(Yack, 2001: 519, 524). 즉, 인민주권에 관한 사유의 중심이 ‘통치’에서 ‘헌법제정권력’으로 옮겨 간 것이다. 이것은 인민이 통치자에게 위임된 권력과 구분되는, 정부 형태를 확립하거나 무너뜨릴 수 있는 권력의 담지자로 상상됨을 의미한다.

이 글의 문제의식에 비춰볼 때 이 점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야크가 설명하듯이 이 대목이 민족주의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그의 논지는 다음과 같다. 정치적 집합체로 ‘상상된 인민’은 공동체의 추상화된 상으로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할 필요성을 낳는다. 인민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재현’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추상화된 인민의 자리를 구체화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현실적 원천으로 상정된 것은 다른 아닌 ‘민족(the nation)’ 관념이었다(Yack, 2001: 526). 그리고 그 결과 정치가 ‘민족화’ 내지 ‘문화화’ 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문제는 그러한 경향이 영토에 대한 배타적인 점유를 전제로 하는 인민주권 원리에 의해 정치적인 동원 기제로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인민의 경계는 국가의 영토적 관할권을 획정하는 데 결정적 요소로 작동하는데, 그러한 인민이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민족’에서 찾는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인민주권은 바로 그 자체의 작동 원리에 의해 ‘국민/민족 주권(national sovereignty)’으로 표상될 수 있다.

그렇다면 근대 주권론에서 인민이 민족/국민으로 표상되는 가운데 부각하는 쟁점은 무엇인가. 먼저 ‘인민주권과 민족주의’의 테마로 두 가지 문제점을 짚어 볼 수 있다. 첫째, 인민주권론의 딜레마다. 앞서 필자는 근대 인민주권의 작동 원리에 의해 민족주의가 정치적으로 동원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물음으로 이어진다. ‘민족주의’의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완화, 극복하고 나아가 그것의 긍정적 차원들을 활성화할 수는 없는가? 이는 야엘 타미르(Yael Tamir)와 같은 ‘자유주의적 민족주의(liberal nationalism)’ 계열 이론가들의 공통된 문제의식이기도 하다(Tamir, 1994). 하지만 이들의 긍정적인 전망과는 달리 야크는 그러한 가능성에 고개를 돌렸다. 그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근대적 성취인 인민주권의 아이디어는 좋은 정치적 질서를 위해 소중하고 필수적인 인지적 자원으로 인식되는데, 이러한 인식이 지배적인 한 인민주권 원리의 구체 작동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동원되는 ‘민족주의’에 기인한 문제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Yack, 2001: 532).

둘째, 민족화된 인민의 상이 갖는 문제점은 이주와 다양성의 맥락에서 첨예하게 표출될 공산이 크다. 물론 현실적으로 인민을 민족으로 상상하는 것이 긴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반식민주의와 해방운동은 이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그러나 배타적 영토성과 민족성이 결합된 방식으로 표출되면 구성원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공산이 그만큼 커진다. 달리 말해 인민주권의 메커니즘에 의해 인민(人民)이 국민(國民)화되는 경우 그 개개인(人)의 침범되어서는 안 되는 자유와 권리가 국가 우월주의에 종속되는 상황이 용인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이주의 시대에 더욱 첨예화될 수 있다. 인민주권의 메커니즘이 자민족 문화 수호적이고 배타적인 민족주의 담론과 연결되는 경우 이주노동자/난민에 대한 적대적 타자화와 부당한 차별로 이어지게 된다. 이를테면 민족 정체성에 대한 고착된 접근은 “[이주노동자들]을 혈연적 순수성과 사회의 동질성을 해할 타자로 인식하고 구별 짓는 태도”를 확산시키게 된다(황준엽, 2012: 390). 더욱이 이러한 차별적인 태도는 그러한 태도를 자양분 삼은 일련의 통치 전략으로 연계될 수도 있다.

한편 민족에 관한 사고를 달리하면 또 다른 가능성이 열리는 것 역시 사실이다. 민족성(nationality)에 관한 데이비드 밀러(David Miller)의 논의는 이 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는 민족성 내지는 민족 정체성이 같은 민족 집단에 속한 개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본다. 그렇지만 밀러의 논지에서 핵심은 민족 정체성은 근본적으로 ‘상상된’ 정체성이고 그렇기에 고착된 그 무엇이 아니라 변화 가능성을 갖는다는 데 있다(Miller, 2009: 86, 127). 나아가 그는 ‘민족’과 ‘종족(ethnicity)’ 개념을 구분하면서 특정 민족이 애초에 종족적인 배타성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다종족 민족(multi-ethnic nations)’의 역사적 사례들이 보여주듯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질적인 종족성을 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Miller, 2009: 19-20).

밀러는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이주의 시대에 이민자는 민족 정체성의 위협이라기보다는 정반대로 민족성에 대한 재의미화와 민주적 갱신의 새로운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관점을 채택한다. 그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민족성의 기본적인 특징을 폐쇄성이 아닌 개방성과 포용성에서 찾고자 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민족성의 원칙과 자유주의 이상이 모순되지 않음을 강조했다(Miller, 2009: 129-130). 또한 민족성에 관한 밀러의 입장은 굳이 탈민족 담론으로 빠져들지 않으면서도 민족주의가 드러내고 있는 문제점을 따져 묻고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통치 양식을 전망할 수 있는 여지를 긍정하고 있다. 특히 밀러의 논지는 한반도 분단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민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민족성의 가치와 유용성을 기각하지 않으면서도 국내 이주에 따라 심화하는 종족문화적 다양성을 품을 수 있는 사유와 실천을 자극한다.

4. 주권은 쇠퇴하는가?: 국가 주권의 신화 혹은 갱신

세계화의 주요 흐름인 국제이주의 확대와 그로 인한 다양성의 심화는 주권 관념과 그것에

기초한 법과 관료제 등의 공적 권위의 제도화 양식의 적합성에 대한 의문과 일련의 논쟁을 낳았다. 이른바 세계주의자들(globalists)은 이주를 포함한 초국적 경향의 확대와 심화가 국가 영토의 탈민족화(denationalization) 흐름으로 이어졌다고 본다. 대표적 논자인 사스키아 사센(Saskia Sassen)의 견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그는 초국적 경향과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 점에 주목했다. 경제적 통합이 증대하고 심화하는 현상으로서의 세계화, 인권 문제에 관한 국제협약의 영향력 증대, 이민 관련 정책 논의에서 정치적 행위자의 유형과 수의 증가가 그 세 가지다. 사센은 이러한 변화들이 이민 관련 문제에 관하여 국가 통제의 성격을 변화시켰다고 본다(Sassen, 1996: 13).⁷⁾

또한 사센은 이민이 새로운 질서를 가늠하고 주권의 상태를 진단하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그는 국가가 이민을 통제한다는 주장이 점점 더 현실성을 잃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인식은 정책 과정에서도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고 말한다(Sassen, 1996: 15). 사센의 평가에 따르면 오늘날 주권의 행사는 전면적이지는 않더라도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초국적 기구, 국제인권협약체제, 기업거래에 관한 국제사법체제를 비롯한 비국가 영역으로 (재)배분되고 있다(Sassen, 1996: 9). 또한 경제적 세계화의 심화로 인해 주권 국가 내부적으로도 기존의 권력과 영향력의 위계 구조가 재편되고 있다고 본다. 이에 더하여 사센은 특히 이러한 경향은 국경을 넘나드는 경제적 공간을 창출하는 흐름과 이민자/난민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 통제를 강화하려는 흐름이라는 두 가지 상호 모순된 움직임이 함께 전개되고 있는 선진국들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본다.

한편 '이주와 주권'에 관한 세계주의자들의 설명에 대한 반론도 줄기차게 이어져 왔다. 여기에서는 대표적으로 크리스티안 욥케(Christian Joppke)의 논의를 살펴본다. 그는 세계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변화된 대외 환경 속에서 국가의 주권이 제약받는 상황을 인정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는 국가 주권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제약(globally limited sovereignty)'이라는 세계주의자들의 기본적인 이해에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입장을 달리했다. 그가 보기에 외부로부터의 제약론은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Joppke, 1998: 13-15). 첫째, 이러한 인식은 애초에 '강력한' 주권이 존재했다고 전제하는데 역사적으로 근대 국가의 발전 과정에서 것처럼 강력한 주권이 존재했던 시기는 극히 짧다. 즉, 세계주의자들이 전제하는 강력한 주권이라는 전제의 허구성을 지적한 것이다.

둘째, 세계주의자들이 국가의 주권 감퇴를 설명하는 구체적인 '초국적' 원인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욥케는 세계주의자들은 초국적 경향이 국가의 이민 통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에 관하여 경험적 연구 수준에서 충분한 논거를 제시하는 데 실패해 왔음을 지적했다. 물론 그는 이민정책과 관련하여 사법적, 헌법적 차원에서의 국가 주권에 대한 제약이 작동해 왔음을 인정했다. 그렇지만 그는 이러한 제약은 기본적으로 대내적 요인이자 초국적 제약으로는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런 논지를 바탕으로 그는 국가의 '자기 절제 주권(self-limited sovereignty)' 개념을 제시했다. 그가 이민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을 제약하는

7) 국경에 관한 국가의 통제력은 결코 절대적일 수 없으며 그런 점에서 국가 통제에 관한 물음은 그 '성격(nature)'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국내적 요인으로 꼽은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하나는 게리 프리만(Gary Freeman)이 논했던 고객정치(client politics)이고, 다른 하나는 이주민과 난민의 처우 및 권리와 관련하여 헌법 규범에 호소하는 헌정정치(constitutional politics)다. 옅케는 전자를 대표하는 국가로 미국을, 후자를 대표하는 국가로 독일을 들었다(Joppke, 1998: 16-20).

이상의 논의와 달리 세계화가 추동한 환경 변화 속에서도 국가 주권이 여전히 유효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재강조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개진하는 논의도 있다. 대표적으로 켄틴 스키너(Quentin Skinner)의 논의를 살펴보면 그는 우선 국제법 기구, 다국적 기업, 인권 규약 등의 초국적 힘들의 작용을 근거로 손쉽게 국가의 쇠퇴를 운운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가 보기에 이러한 견해는 일면적인 단순 해석으로서 ‘국가의 죽음’을 과도하게 단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 그는 국제질서를 선도하는 국가들이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강조한다(Skinner, 2010: 44). 스키너에 의하면 국가 간 불균등한 힘의 배분 상태는 강대국과 약소국의 주권 행사의 차이를 가져왔는데, 이러한 글로벌 불평등은 세계화의 결과이자 추동 요인으로서 세계화를 선도하는 강대국들의 자율성을 가일층 높이는 배경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지만 국가 주권에 관한 스키너의 논의에서 더욱 주목해야 할 지점은 다른 데 있다. 스키너가 국가 주권이라는 오래된 주제를 재강조하는 까닭은 ‘공적 권력(public power)’과 관련된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18세기 중엽에 이르러 ‘가상인(persona ficta)’으로서의 국가 관념이 영국과 유럽의 공법과 국제법에 전고하게 뿌리내렸다(Skinner, 2010: 40). 이는 절대주의 국가관이나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인민주의 국가관과 구분되는 국가관이다. 스키너에 따르면 이처럼 국가를 ‘가상인’으로서 이해하지 않고서는 (사적 권력과 구분되는) 공적 권력에 대하여 일관되게 설명하기가 무척 어렵다(Skinner, 2010: 45).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이민정책과 관련한 공적 권력의 문제를 이해하고자 할 때도 근대의 추상화된 인민을 전제로 한 국가 주권은 빼놓을 수 없는 주제라 말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이민정책과 관련한 정부의 통치행위의 정당성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인민주권에 기초한 국가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것이다.

이 밖에도 국가의 주권과 관련한 또 다른 부류의 논의가 있다. 바로 이민 통제와 관련한 국가 주권의 행사가 어떤 방식으로 새롭게 전개되는지에 주목한 논의다. 이 부류의 논의는 역시 국가 주권 쇠퇴론을 일축하면서 국가의 통제력이 행사되는 다양한 방식들에 관심을 둔다. 버지니 귀라우돈(Virginie Guiraudon)과 갈리야 라하프(Gallya Lahav)의 논의는 이 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Guiraudon and Lahav, 2000). 이들은 세계화와 이주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 주권 내지는 국가 통제력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새로운 형태로 실천되는지를 ‘권한이양’(devolution)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들은 국가가 효과적, 효율적 이주 관리를 위해 민간 영역으로, 지방 정부로, 초국적 기구로 일정 권한을 이양하는 패턴을 들여다보면서, 흡사 ‘노동 분업’을 연상시키는 이러한 권한이양의 방식이 실은 국가 주권을 실천하는 또 다른 전략적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두 학자는 국가가 이주 관리의 방편으로

이러한 권한이양 방식을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주권을 지켜내고자 한다고 보았다(Guiraudon and Lahav, 2000: 164-165).

V. 나가는 말

주권은 정치학의 영원한 테마라 할 수 있다. 권력, 권위, 통치 정당성, 성원권, 정치적 소속감,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비롯해 정치학이 아우르는 주요 주제들은 주권과 철학적, 이론적, 역사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다. 그렇지만 학계에서 주권 개념에 관한 논의는 (적어도 1990년대 이전까지는)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했고, 성원권 및 시티즌십의 맥락에서 주목받은 '이주-다양성'이 정작 주권 논의와는 잘 연결되지 못했다. 그렇지만 주권은 성원권 정치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연구 주제로 '국민'과 '비국민'의 경계 및 이들의 일상에 가하는 국가 영향력의 성격을 분석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유용한 개념적 도구이다.

이에 이 글은 '이주의 시대'에 시티즌십이 주권의 작동과 어떤 방식으로 맞물려 있는지를 해명하는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주권-이주 연계' 관련 쟁점을 인민의 범주, 통치의 주체, 인민의 민족화/국민화, 국가 주권의 신화와 갱신이라는 네 가지 주제로 살펴보았다. 인민의 범주와 관련해서는 범주의 딜레마를 짚은 뒤 '국민/민족 국가(nation-state)'의 인식론적 틀 속에서 인습적으로 해왔던 사고를 탈피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음으로 통치 주체의 측면에서는 인민 개념에 대한 정치적 상상의 갱신을 통해 '민주적 인민성(democratic peoplehood)'을 모색할 필요성을 짚었다. 이어서 인민이 민족 내지는 국민으로 표상되고 제도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본질주의적 접근에 함몰되지 않고 민족성에 대한 재의미화와 민주적 갱신의 가능성을 긍정하였다. 또한 이주 관리의 측면에서 국가 주권의 쇠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그것이 새롭게 주목받고 갱신되고 있는 흐름을 간략히 짚었다.

마지막으로 '주권-이주 연계'에 관한 이상의 논의를 통해 필자가 궁극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바를 보다 분명히 드러내면 다음과 같다. 시민들이 이주노동자와 난민을 비롯해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자리'에 서 봄으로써 인민에 대한 인습적 사고와 거리를 두면서 인민/국민/민족 개념을 자기 해방적인 방식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그것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창조적 상상은 무척 어려운 일이지만 지속가능하고 민주적인 이민 레짐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피할 수 없는 과제다. 강조건대 이주민과 난민을 '타자'가 아닌,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들'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참고문헌

- 박명규. 2009. [국민, 인민, 시민: 개념사로 본 한국의 정치주체]. 소화.
- 이경민. 2021. “헌법의 정치적인 의미.” 《정치사상연구》 27(1): 88-109.
- 최장집. 1996. [한국민주주의의 이론]. 한길사.
- 황영주. 2009. “주권의 형성과 발전.” 《한국시민윤리학회보》 22(2): 185-202.
- 황준엽. 2012. “미등록 외국인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에 관한 작은 고찰.”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편, [소수자 인권]. 에세이퍼블리싱.
- Ackerman, Bruce and James S. Fishkin. 2003. “Deliberation Day.” in James S. Fishkin and Peter Laslett eds. *Debating Deliberative Democracy*. Blackwell Publishing Ltd.
- Demo, Anne. 2005. “Sovereignty Discourse and Contemporary Immigration Politics.” *Quarterly Journal of Speech* 91(3): 291-311.
- Gordon, Scott. 1999. *Controlling the State: Constitutionalism from Ancient Athens to Today*. Harvard University Press.
- Guiraudon, Virginie and Gallya Lahav. 2000. “A Reappraisal of the State Sovereignty Debate: The Case of Migration Control.”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3(2): 163-195.
- Joppke, Christian. 1998. “Immigration Challenges the Nation-State.” in Christian Joppke ed. *Challenge to the Nation-State: Immigration in Wester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Oxford University Press.
- Krasner, Stephen. 1988. “Sovereignty: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21(1): 66-94.
- Manin, Bernard. 1997. [The Principles of Representative Govern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곽준혁 역. 2012. [선거는 민주적인가: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에 대한 비판적 고찰]. 후마니타스).
- Maritain, Jacques. 1950. “The Concept of Sovereignty.”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44(2): 343-357.
- Miller, David. 2009. *On Nationality*. Oxford University Press.
- Sassen, Saskia. 1996. “Beyond Sovereignty: Immigration Policy Making Today.” *Social Justice* 23(3): 9-20.
- Skinner, Quentin. 2010. “The Sovereign State: A Genealogy.” in Hent Kalmo and

- Quentin Skinner eds. *Sovereignty in Fragments: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a Contested Concep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mir, Yael. 1994. *Liberal Nation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urner, Bryan. 1986. [Citizenship and Capitalism : The Debate Over Reformism]. Unwin Hyman (서용석·박철현 역. 1997. [시민권과 자본주의]. 일신사).
- Yack, Bernard. 2001. "Popular Sovereignty and Nationalism." *Political Theory* 29(4): 517-536.

A Preliminary Study on the Nexus of Sovereignty and Migration

Junsung Han*

Abstract

This article is a preliminary study on the nexus of sovereignty and migration. Sovereignty is a conceptual tool with which to analyze the boundaries between citizens and non-citizens and the nature of state influence on their daily lives. In the social sciences, migration has often been discussed in relation to questions of citizenship. However, the development of citizenship is closely intertwined with the way sovereignty is institutionalized. In this regard, we need to explore the ways in which citizenship is intertwined with the exercise of sovereignty in the age of migration. With this in mind, this article examines issues related to the sovereignty-migration nexus through the four themes: who are the people?; who governs?; the nationalization of people; the myths and renewal of state sovereignty. The article ultimately draws attention to the critical and emancipatory function of sovereignty as a discursive resource, raising the need to understand migrants and refugees as ‘perspectives.’

Keywords: The Nexus of Sovereignty and Migration; Citizenship; Kukmin; Nation; People; Popular Sovereignty; State Sovereignty; Emancipation

투 고 일 : 2023. 05. 22.

수 정 일 : 2023. 06. 09.

확 정 일 : 2023. 06. 16.

* Gang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10-20대 북한이주여성들의 또래관계 경험과 사회정체성

전주람* · 김유진** · 손인배***

요약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 거주하는 10-20대 북한이주여성들의 또래관계 경험과 사회정체성 형성 과정이 어떠한지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또래관계 경험에 관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총 5명의 북한이주여성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2021년 5월부터 약 4개월간 심층면담을 통해 반구조화된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 '경쟁적인 한국교육환경 적응 및 윗동네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 '남한친구들의 편견어린 시선과 뒤늦은 출발 및 열등감', '북한사람에 대한 남한출생 친구들의 긍정적인 관심 및 지지체계', '온전한 남한사람 되기 및 남한출생 친구들간 경계짓기' 4개의 대주제와 9개의 하위주제로 도출되었다. 이는 북한이주여성들의 긍정적인 또래관계 경험 및 유지가 그들의 사회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 매우 중요함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주여성들의 적응적인 또래관계 경험 및 유지에 관한 실천적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핵심 단어: 북한이주여성, 또래관계, 사회정체성, 질적사례연구

* 제1저자, 서울시립대학교 교직부 강사 ■ ramidream01@uos.ac.kr

** 공동저자,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학부생 ■ kyujin099@naver.com

*** 교신저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박사후연구원 ■ inbaesohn@gmail.com

I. 서론

2022년 4월 기준 초, 중, 고 및 기타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 수는 2,061명으로 나타났다(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2023). 이 수는 2017년까지 증가하다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된 특징으로는 탈북 청소년들이 학교 밖 청소년 혹은 일반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하여 대안학교로 전학을 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처럼 학교에서 북한이주 학생들이 중도탈락하고 대안학교로 진학이 증가하는 점은 북한이주 청소년과 남한출생 청소년들의 사회적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

청소년들은 가족원들보다 또래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 상호교류하므로 청소년 시기 중요한 과업임에도 불구하고 탈북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은 중요한 요인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해왔다(정서윤, 2015). 청소년 시기에는 신체적 급변기를 맞이할 뿐만 아니라 인지적, 사회적 측면에서 또래관계가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Berndt, 1982). 청소년들은 긍정적인 친구관계를 통해 자존감을 높이며, 외롭지 않을 수 있고, 보다 성숙한 대인관계 능력을 갖추어 나간다(Savin-Williams and Berndt, 1990). 그들은 원만한 친구 관계를 통해 보다 즐거운 학교 혹은 일상생활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 등교거부, 전학 등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북한이주민들의 경우, 친구관계는 학교적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나, 그들은 한국사회에서 사회문화적, 경제적 제약을 겪는 소수자로서 언어 및 문화적 차이, 편견과 차별 등을 경험하며 정착해간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탈북청소년들은 남한출생 청소년들에 비해 1-3세 많게 정규학교에 입학하여 많게는 6세까지 차이가 나게 되고, 다른 문화로 인해 남한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 어려워 또래문화에 합류되지 못한다(이향규, 2006). 또한 한국출생 학생들에 비해 학업수준이 낮고 신체적으로 열악한 조건을 지녀 따돌림을 당하거나 일부 중도탈락이나 일탈행위로 이어지기도 한다(박윤숙, 2009).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과 ‘북한사람’에 대한 차별로 인해 괴롭힘과 놀림을 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별적 시선에 대한 분노와 폭력성으로 이어지거나(김명선, 2014), 자신들의 정체성을 숨기는 방향으로 돌파구를 찾기도 한다(정진경·정병호·양계민, 2004).

틀뢰즈(Gilles Deleuze)가 언급한 바와 같이, 타자는 내가 지각하는 대상이나 나를 지각하는 어떤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지각을 가능하게 해주는 지각장의 구조, 즉 구조-타자의 문제이다(김지영, 2004). Tajfel과 Turner(1979)은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세계를 범주화하고 자신을 특정 사회적 집단에 소속된 존재로 인식하고자 노력하면서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설명하였고, Giles와 Johnson(1981)은 개인이 내집단과 동일시하고 자신을 외집단과 구분하면서 두 집단 간에 사회적 경쟁이 발생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즉 북한이주 청소년 및 청년들은 ‘북한출신’자로서 남한출생 또래들과 경계지으면서 동시에 남한친구들과 어울리며 소속된 존재로 살아가고자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무엇보다 편견과 차별이 최소화되는 총체적인 학교 환경이 중요할 것이며, 이는 북한이주 학생들은 남북한 학교환경을 모두 경험한 청

소년(혹은 청년)으로서 자신의 개성있고 고유한 사회정체성을 만들어나가도록 도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탈북 청소년 및 북한이주민 관련 교육의 연구 주제가 ‘학교’와 ‘학습’과 관련된 주제에 치우쳐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 그간 미흡했던 한국사회에 거주하는 10-20대 북한이주여성들의 또래관계와 사회정체성 형성과정 경험이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탈북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고민을 꼽자면 크게 두 가지로, 학습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과 학급 친구를 사귀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첫째, 학습면에서 탈북 초등학생, 중학생의 기초 학력 검사에서 탈북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이 남한출생자 학생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숙, 2004). 이는 상급 학교로 갈수록 심해지는데, 그 이유는 초등학생 때부터의 학력 부진이 누적되어 상급학교의 더 난이도 있는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포기하기 때문이다. 모든 과목에서 학력 수준이 떨어지지만, 특히 국어, 영어, 수학의 주요교과에서 그 현상이 제일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학습능력 수준의 문제도 존재하겠지만, 북한과 남한의 교육 제도 차이, 입남 초기의 학습 공백 등 여러 제도적인 문제가 크게 작용한다.

둘째, 청소년기는 부모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친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이자, 특히 북한이주 청소년들에게 친구관계는 가족보다도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주는 더 중요한 사회적 관계이다(정재경·강민주, 2010). 가족의 형태면에서도 북한이주민들은 가족해체와 사망 등 가족형태의 변화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다 다양한 친구관계 경험의 기회를 확대시켜 긍정적인 지지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긍정적인 또래관계 경험은 청소년을 사회적, 정서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Rubin, Root and Bowker, 2010), 또래와의 애착이 잘 형성되어 있을수록 자아정체감과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미려·양은주, 2017). 또한 청소년기에는 소속감의 욕구가 강해지는 시기이자 세상의 중심이 자신이라고 믿는 특징을 지니므로, 자신이 속한 집단 구성원들의 수용과 승인은 사회적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진혜경, 2016). 하지만 북한이주 학생들의 경우 학교와 사회에서 경제적, 심리문화적 제약을 지닌 소수자로 위치하면서 사회적 배제와 낙인, 소외감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탈북청소년들이 학급에서 친구를 사귀는 것 또한 큰 어려움을 겪는다(이향규, 2007). 이는 본인의 나이에 맞는 학년에 배정될 수도 있지만, 그간의 학습 공백으로 인해 더 낮은 학년에 배정되는 경우가 있어, 이때 학급 친구들과의 나이 차이로 인하여 위축감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탈북청소년들의 대인관계능력 향상에 관한 집단 프로그램을 분석한 박지영(2001)에 의하면,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몇 가지 요소로, 불안정한 또래관계로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었다는 점과 이로 인해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탈북 과정에서 학습된 폭력성과 과격함이 또래 관계에서 부정적으로 표출된

다는 것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2017-2019년 입남한 10-20대 북한이주민들 6명을 대상으로 집단초점 면담법을 활용하여 친구관계를 탐색한 전주람과 최경(2022)에 따르면, 북한이주민들은 친구개념 정의에서 ‘믿음’과 ‘신뢰’를 중요하게 인식하며 기능면에서 심리정서적 지지가 매우 중요하며, 친구 놀이문화에서 혼자보다는 자연친화적이고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신체 활동량이 많은 친구 놀이문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북한이주민들의 친구관계에서는 소외감, 부당한 차별경험이 있었으나 동시에 좋은 친구들과의 만남으로 정서 지지체계 경험도 혼재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이처럼 북한이주민들에게 사회적 교류가 중요한 이유는 자기정체성 형성과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사회정체성은 자기를 사회적 범주 안에서 구성하며(Turner, 1999), 특정 사회 집단 구성원으로 어떤 감정과 가치의 중요성을 함께하고 있다는 개인의 지식(Tajfel, 1981)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본래 정체성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비슷한데,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 및 역사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Jenkins, 1996). 특히 청소년 시기에 있어 정체성은 또래 관계나 선생님으로부터 가치있는 ‘삶의 방식’에 영감을 받기 위한 사회에 대한 사상의 잠재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Erikson, 1968).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기의 또래 관계는 사회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연구에서 사회적 관계는 청소년의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학교 적응 수준을 향상시키며,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나 교사관계보다 또래 관계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곽수란, 2014). 또한 사회정체성이 높을수록 집단 의식이 강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짐으로 집단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었다(박노윤·이은수, 2014). 반면, 청소년기에 손상된 사회적 정체성으로 불리는 사회적 낙인을 경험하게 되면 극복 의지 상실, 우울증 등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김경준, 2010). 북한이주 청소년들은 공식적, 비공식적, 자기 낙인을 경험하는데, 이는 내면의 수치심, 낮은 자존감, 회의적 미래를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현숙·유해숙, 2015).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 생활이 중단했을 때 또래 관계의 중단, 정체성의 혼란, 고립감 등을 경험하여 사회정체성의 위기를 겪기도 한다(권옥현·허소정·김영애·이동훈, 2021). 이처럼 청소년 시기의 또래 관계는 사회정체성 형성에 있어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주는데, 이는 청소년이 속한 집단의 적응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방법론 중에서 질적사례연구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북한이주민의 연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부터 연구참여자 1, 2를 추천받는 세평

적 사례선택(reputational case selection) 방식과 참여자 1과 2를 통해 다른 참여자를 추천받는 눈덩이 표집 방식(snowball sampling)을 활용하였다. 가족형태, 학력과 경제적 계층 등에 제한을 두지는 않았지만 지역적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평양을 제외한 양강도 중심의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표집하였고, 적어도 10대 후반~20대 초반 여성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공통적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선정된 연구참여자는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징

연구참여자	나이	탈북연도	고향	북한에서의 경제적 수준	인터뷰당시 가족원수
1	22	2019	양강도	상	1(부는 사망, 모의 생사는 모름)
2	17	2018	양강도	하	3(모와 새아버지, 참여자)
3	22	2014	양강도	중상	3(부모님과 참여자)
4	20	2017	양강도	중	3(모, 오빠와 참여자)
5	21	2014	양강도	중상	4(부모님, 오빠와 참여자)

연구참여자 1은 2019년 탈북하였고 인터뷰 당시 대학 입학 준비하고 있었고, 2023년 당시 그녀는 대학에서 조리학과에 입학하여 재학 중이다. 그녀는 북한 거주 시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였으나, 아버지가 어머니를 매우 심하게 폭력하는 장면을 자주 목격하며 성장하였다. 이후 부는 병으로 사망했고, 모는 구류장에 수감되었으나 생사는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는 인터뷰 당시 버스, 지하철 이용을 어떻게 하는지 길 찾는 문제에 스트레스가 컸고, 친구를 사귀는 일에 관해서는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 몇몇 남한출생 친구들이 있었으나 북한 친구들과는 달리 겉과 속마음이 다르다고 인식하며 남한 사회에서 친구 관계는 고향에서와는 다르다고 느끼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양면적인 얼굴을 하여 깊이 친밀해지기 어렵다거나, 아직 한국사회에 적응 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믿을 수 없다고 인식하였다.

연구참여자 2는 친모가 먼저 탈북하였고 양어머니와 친아버지와 함께 고향에서 지냈었다. 이후 2018년 북한에 계신 부의 권유로 남한으로 탈북하게 되었다. 그녀는 북한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컸기 때문에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였다. 가발공장에 들어가서 일하거나, 가끔 사탕을 파는 등 소소한 일거리를 찾아 일해야만 했다. 한국에 도착하여 친모를 만났지만 오랜만에 만난 탓에 조금 어색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발달 장애를 겪는 동생이 있었으므로 연구참여자는 집에서 주목을 받고 충분히 돌봄을 받지 못했다. 연구참여자는 한국에 오자마자 일반 학교에 입학하기로 결정했고, 친구들에게 처음부터 당당하게 북한사람이라고 밝혔다. 주로 친구들은 북한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학교생활은 어땠는지 등에 관해 긍정적인 호기심을 보여주었지만, 가끔 자신을 이상하게 편견 어린 시각으로 쳐다보는 친구들 때문에 불편하곤 했다.

연구참여자 3은 2014년도 이종사촌 동생들과 함께 탈북했다. 그녀는 외동아였고 북한에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편이었다. 그녀가 한국에 도착하여 무엇보다 빠르게 변화시키고 싶었던 점은 북한식 말투였다. 그래야만 친구문화에 빠르게 합류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학에 다니고 있는 지금까지 자신이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다. 그녀는 남한출생 친구들과 문화에 합류하기 위해-혹은 혹시라도 자신이 북한사람인 것이 들리지 않을까 조마조마했으므로-한국에서 유행하는 캐릭터와 드라마 스토리 등을 알고자 치열하게 찾아봤다. 곧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해외로 출국할 예정이다. 외국을 간다는 건 그녀가 오래 동경했던 로망이자 꿈이었다. 유아교육과를 다니는 그녀는 보다 충분한 보수의 직장을 얻기 위해 영어를 하기로 결심했고 미래 진로를 매우 적극적으로 개척 중이다.

연구참여자 4는 2017년 가족탈북하였다. 지금은 S대 간호학과에 재학중이다. 오빠는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다. 그녀는 남한출생 친구들과 동일한 선에서 출발할 수 없는 현실을 자각하고 받아들였다. 그러면서도 가족의 현실을 떠올릴 때면 치열하게 시간을 아껴 쓸 수밖에 없는데, 박스회사를 다니며 고생하시는 어머니의 고생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서이다. 그녀는 하고 싶은 일이 많다. 해외선교에도 관심이 있고, 기본적인 편안한 의식주 생활도 마련하고 싶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성공한 전문가이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대학교수가 되기를 꿈꾸고 있다. 인터뷰 당시 남한출생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었지만 자신이 북한사람이라는 사실이 나중에 남자친구 가족들에게 수용될지에 관해 고민이 컸다. 그녀는 두루 사회성이 좋고 긍정적이며 활발한 편이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순수하고 의리있는 고향 친구들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그녀의 입장에서 한국에서 태어난 친구들은 좀 정이 없다랄까.

연구참여자 5는 2014년 탈북하였다. 먼저 한국에 오신 친모를 만났지만 오래 못본 탓인지 낯설다. 주로 그녀는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했다.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이모의 권유 덕분에 대학에 입학했다. 대학에서 복지학과를 전공하고 있는데 그녀의 성격과 전공은 대체로 잘 부합하는 듯하다. 그녀에게 남한출생 친구들은 겉과 속이 다르고 자신의 내면을 잘 드러내지 않는 ‘여우’ 같다. 고향친구들과 달리 돈계산에 정확하고 (그녀 표현에) ‘머리를 쓰는’ 친구들이 많았다. 그녀는 보다 더 끈끈한 정이 있는 인간관계를 원한다. 인터뷰 당시 그녀는 대체로 집에 머물고 있었다. 친구들에게 상처받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밖에 나가 사람들 만나는 것이 두려울 때도 있고 앞으로 친구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나가야할지 고민이라고 했다. 요즘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는 6살 어린 고향후배이다. 그녀는 연구참여자 4의 힘든 마음을 잘 헤아려주는 듯하다.

다섯 명의 연구참여자 4들의 공통점으로는 친구들에게 쉽게 마음을 잘 열지 않는다는 점과 친구들과 친밀감을 형성하기까지 시간이 대체로 많이 소요된다는 점이 공통점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정체성과 관련하여, 자신이 ‘북한사람’이라는 사실에 관해 누군가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밝혀지는 경우도 있고(참 5), 당당하게 밝힌 참여자(참 2)도 있었지만, 모두 ‘북한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없었으며 부정적이고 편견어린 타자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10-20대 북한이주민을 대상으로 입남초기 포래관계가 어떠한지 탐구하고자 2021년 5월부터 9월까지 약 4달간 서울에 거주 중인 연구참여자 5명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참여 방법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총 2회 개별 인터뷰를 하였다. 면접 시간은 회당 2시간 실시하였다. 인터뷰 질문은 반구조화된 형태로 구성하여 진행하였고, 포래관계에 관한 연구참여자들의 인식을 끌어내는 데 목표로 삼고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표 2〉). 연구참여자들의 인터뷰 내용은 모두 전사하였고, 이후 Downe-Wamboldt(1992)의 8단계 절차에 따라 주제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크게 네 가지 단계를 거쳤다. 우선 연구참여자들의 원자료를 반복하여 읽었고, 의미 있는 진술을 중심으로 의미 단위의 선정을 통해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자 간 합의를 거쳐 의미 있는 진술을 분석하면서 개념화하였다. 다음으로 도출된 주제를 정의하고 검증하는 단계로, 연구자 간 합의를 거쳐 분석된 하위범주 내용에 관하여 개념화된 주제를 기술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연구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질적연구의 경험이 충분한 북한학 전공자 1인과 자료를 공유하며 재분석 및 확인을 해나갔다.

〈표 2〉 북한이주여성 대상 심층개별면담에서의 연구내용과 면접질문 내용

회기	내용	입남 초기 포래관계에 관한 주된 질문
1회기	북한 거주 당시 - 포래관계에 관한 전반적인 경험 - 포래관계에 관한 동기, 활동내용 및 특징	• 인구사회학적 관련 질문 (탈북 동기, 거주지역, 고향, 나이 등) • 북한에서의 친구관계는 어떠한지에 관한 경험 • 북한에서 주로 친구들과 어떠한 놀이경험을 하였는지에 관한 경험
2회기	입남 초기 - 포래관계에 관한 경험 - 포래관계에 대한 기대 - 포래관계에 영향을 미친 방해요인 - 포래관계와 사회정체성간의 관계 등	• 입남 후 포래관계는 어떠한었는지 공통된 부분과 변화된 부분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경험 탐색 • 입남 후 포래관계에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경험과 그 이유 • 북한이주민이라는 배경이 포래관계에 미친 개인 내·외적 영향 • 포래관계 경험이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탐색 • 사회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외적 요인에 관한 탐색

〈표 2〉와 같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면담 방식을 자세히 안내하고 공식적인 동의절차를 거쳤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참여자 zoom프로그램 활용(연구참여자 1, 2, 4, 5)과 대면방식(연구참여자 3)으로 개별면담하였다. 질문지는 참여자들

에게 미리 배부함으로써 북한과 제3국, 남한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또래관계를 경험했는지 생각하는 기회를 미리 갖도록 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 개인당 2회 인터뷰를 반구조화된 면담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각 회기별 소요시간은 평균 약 2시간이었다.

개별 심층면담은 Seidman(2013)이 언급한 세 단계로 진행하였다. 첫 번째 인터뷰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생애사에 초점을 두고 탈북하게 된 동기, 가족탈북 여부, 북한의 잔여가족, 또래관계 내용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탐색했다. 아울러 북한에서의 친구관계는 어떠했는지, 북한에서 주로 친구들과 어떠한 놀이경험을 하였는지 등에 관해 탐색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인터뷰에서는 입남후 또래관계는 어떠하였는지 공통된 부분과 변화된 부분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경험을 탐색하였고, 입남후 또래관계에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경험과 그 이유에 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아울러 북한이주민이라는 배경 때문에 사회정체성 형성과정에서 경험한 긍정적, 부정적인 경험에 관해 탐색하고, 이러한 현상이 무엇 때문인지에 관해 개인내·외적 영향을 탐색하고 개별인터뷰 참여에 관해 느낀점을 나눈 후 마무리하였다.

IV. 결과

이 연구에서는 질적사례연구 방법론을 활용하여 5명의 북한이주여성들의 또래관계와 사회정체성 형성과정을 탐색한 결과, 그 내용은 ‘경쟁적인 한국교육환경에 적응하며 윗동네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 ‘남한친구들의 편견 어린 시선과 뒤늦은 출발 및 열등감’, ‘북한사람에 대한 남한출생 친구들의 긍정적인 관심 및 지지체계’, ‘온전한 남한사람 되기 및 남한출생 친구들간 경계짓기’ 4개의 대주제와 9개의 하위주제로 도출되었다.

〈표 3〉 연구참여자들의 또래관계 경험과 사회정체성에 관한 구성요소

대주제(4)	소주제(9)
경쟁적인 한국교육환경에 적응하며 윗동네 ¹⁾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	- 한국사회는 북한교육 체제와 달리 경쟁적이고 치열한 교육환경임: 북한은 학업 스트레스가 적었음, 북한은 남한에 비해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충분함. - 북한에서 친구들은 의리있고 서로 계산하지 않는 순수한 친구관계였음.
남한친구들의 편견 어린 시선과 뒤늦은 출발 및 열등감	‘북한사람’이라는 친구들의 불편한 시선 - 남한출생 친구들과 출발선(경제적, 사회문화적 경험, 교육적 학습경험 등)이 다른 데서 오는 열등감과 불안감
북한사람에 대한 남한출생 친구들의 긍정적인 관심 및 지지체계	- 북한사람, 사회 및 문화에 대한 남한출생 친구들의 긍정적인 질문과 편견없는 관심 - 북한사람이라는 사실을 수용하고 진로개척 및 성장의 기회

온전한 남한사람 되기 및 남한출생 친구들간 경계짓기	• 북한말투 벗어던지기, ‘남한사람’ 되기 위한 노력 • 북한과는 달리 이중적이고 계산적인 친구로 인한 상처와 경계를 경험 • 남한출생 친구들과 사회비교를 통해 ‘북한사람’으로서 자존심을 걸고 성공하기로 결심
------------------------------	--

1. 경쟁적인 한국교육환경에 적응하며 ‘윗동네’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

연구참여자들은 북한사회에서 공부가 우선시되지 않으며 종종 신체적 노동(예. 교실청소, 꽃심기 등 여러 활동)은 있었지만 대체로 심리적 압박이 적던 윗동네의 학습환경을 그리워했다. 경제적으로 10대 어린 나이에 힘든 시기를 보낸 참여자 2에 따르면 북한사회에서 ‘공부를 잘하는 일’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녀의 모(母)는 “왜 쓸데 없이 공부를 하느냐”라는 말을 종종 언급하는 등 공부해야 할 의미는 크게 없어 보인다. 연구참여자 2는 시멘트를 나르고 부품조립하는 공장에서 일했던 기억, 가발공장에서 일했던 경험 등을 회상하며 10대 초반에 어려운 가정형편에 보탬이 되고자 일했던 경험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교육의 목적과 그 의미가 한국과는 다르기 때문으로, 북한의 교육제도는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체제 유지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된다(국립통일교육원, 2023). 북한에서 학교는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므로 조직생활과 사회정치 활동을 벌이며, 북한교육은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밀접히 결합하는 것(박정숙, 2013)이 특징이다. 즉 북한교육은 북한에서 추구하는 이념적 지향인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교육의 성격을 갖는다.

〈북한교육과는 다른 한국사회의 교육환경〉

“북한에서는 공부 공부 안해요. 왜냐하면 공부해도 쓸 데가 없거든요. 그럼 엄마들이 ‘아~ 그 쓸데없는 공부 왜 하는 거야! 그냥 나가서 놀아’ 그래요. 물론 공부를 하라는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솔직히 굳이 왜 공부하냐는 부모가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 가면 맨날 돈 내라고 하거든요. 저는 10살 이후부터가... 11살 4월 달까지 학교 다니고 안 다녔어요. 5월 달부터. 그냥 뭐 시멘트도 나르고, 강에서 거머리도 잡고 그랬어요 (연구참여자 2).”

“저는 북한에 있을 때가 더 좋았어요. 애들이랑 노는 시간이 더 많았거든요. 한국에 오니까 친구들이랑 놀기 어려워요. 저 역시 한국사회에 익숙해서 놀면 안돼요. 공부해야죠? (연구참여자 4).”

1) ‘윗동네’는 연구참여자들이 ‘북한사람’, ‘북한출산 남한사람’, ‘남한사람’ 등 그들의 정체성에 관해 한국사회에서 어떠한 용어로 일컬어지기를 원하냐는 질문에 답변한 용어이다. 용어에 관해서는 정책적으로 사회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연구참여자들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법적인 용어에 관해 “불법을 저지른 사람” 혹은 “온전히 한국사람은 아닌 자” 등 부정적인 어감을 드러낸 바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북한에서의 또래관계 경험의 특징은 ‘순수하고’, ‘의리 있는’관계로 떠올랐다. 여기에서 순수하다는 의미는 ‘계산하지 않는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다’는 속성을 포함하며, ‘의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친구를 떠나는 일 없이 지속되는 특징을 뜻한다. 예컨대 연구참여자 4가 언급한 바와 같이, 친구가 향수를 갖고 싶다면 돈이 없어서 충분히 합심하여 기꺼이 선물해줄 수 있다. 이러한 친구관계는 ‘주고 받는 관계’에서 벗어나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즉 연구참여자들은 이상적인 친구관계에서 두 가지 속성(순수성과 의리)을 중요시했고, 북한사회에서 어렸을 때 경험했던 윗동네 친구들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산하지 않는 또래관계〉

“만약 친구가 향수가 필요하다. 그런데 돈이 없다? 그러면 저희는 무조건 돈을 모아서 사 주거든요. 의리가 있어요. 여기 (남한에서 태어난)애들처럼 지난 번 내가 무엇을 받았으니 이번에는 내가 뭔가 주는 식이 아니에요. 친구면 모든 것을 나눌 수 있어야죠. (연구참여자 4).”

“여기에서 생일이라고 하면 돈을 같이 내서 먹잖아요. 고향에서는 제가 생일이면 친구 몇 명에서 밥먹은 것들을 결제해줍니다. 저는 결제를 못하게 하는 거죠. 북한 친구들이랑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한 친구들이랑은 더치페이 합니다. 북한친구들은 더치페이 하는 것을 좋아 안합니다. 이걸 엄청, 우리사이 딱딱한 것 같이 느끼는 거죠(연구참여자 5).”

2. 남한친구들의 편견어린 시선과 뒤늦은 출발 및 열등감

연구참여자들의 또래관계에 방해가 된 요인으로서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었다. 첫 번째로 남한출생 친구들의 편견과 고정관념이다. 입남초기 남한친구들에게 ‘북한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해야할지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참여자 2의 경우 당당하게 북한에서 왔다고 학급에 말하는 경우도 있었고, 연구참여자 5는 학교 담임선생님에 의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북한사람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북한사람’은 소수자의 위치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북한사람’인 사실을 숨겨온 이들도 있었다(연구참여자 1,3,4).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관해 고민하는 이유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연구참여자 2가 친구들 사이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남한친구들은)북한은 폐쇄적이고 가난하다’는 식의 편견어린 남한출생 친구들의 시선과 고정관념이 주된 요인으로 이해된다.

〈남한출생 친구들의 불편한 시선〉

“..처음에는 너무 두려웠죠. 애들이 북한 사람 구경온다고 하고....(연구참여자 3).”

“북한에서 온 애라는데.. 와! 조금 아니꼽게 보는 애들도 있기는 한데 솔직히 사람이 만인의 사랑을 다 받고 살지는 않잖아요. 친구들이 ‘아, 재 북한에서 왔대’하면서 되게 신기하게 보는 거? 그게 에피소드죠. ‘북한 어때?’ 그 때 너무 엽신여기는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뒤티비보니까 북한 그렇던데. 맞아?’ 북한이 여기서 생각하는 것처럼 폐쇄적이지 않아요. 왜냐면 돈이 있으면 살기 좋거든요. 북한도 돈이 있으면 세상에 없는 거 있을까요? 다 있어요. 돈이 있으면. 아예 없진 않아요. 돈이 없을 뿐이지. 잘 사는 사람들은 안 오잖아요. 잘 사니까 안 오는거죠. 북한도 백화점 가보면 없는 게 없어요, 진짜(연구참여자 2).”

두 번째 연구참여자들의 토래관계 유지에 방해가 된 요인으로 남한출생 친구들과 사회문화적, 교육 및 경제적으로 동등하지 못한 출발선에서 오는 열등감과 불안이다. 예컨대 한 연구참여자는 입남 초기 대중교통을 어떻게 타야 하는지 모르는 어려움이 있었고, 이 때문에 지하철노선도를 찾아보며 혼자 다니기 어려웠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에게는 한국사회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여성의 신체적 이미지에 대한 적응과정도 필요했다. ‘여성은 반드시 날씬해야한다’는 신념은 연구참여자들 모두에게 스스로 자신의 몸에 관해 똥똥하거나, 다이어트가 필요한 몸 등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했다. 이러한 적응과정은 연구참여자들이 초기 적응과정에서 겪어야 할 일상의 적응과정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열등감을 경험하게 하는 요인이 된 것으로 이해된다. 연구참여자 4에게는 열등감이 자신의 노력에도 쉽게 사라지지 못한 두려운 대상이었고, 연구참여자 1은 가중된 스트레스가 정신병리적인 문제(공황장애)로 이어져 지하철에서 과호흡이 오기도 했다.

〈남한출생 친구들과의 사회비교에서 오는 열등감〉

“(대중교통 타는걸)모르면 다 바보같고... 친구는 되는 데 나는 안되면 자존심 떨어지죠. 그래도 다 참아내는거예요. 살이 엄청 찌고 하니까 막 죽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심리적으로) 일어서겠지 했는데 속도가 너무 더딘거예요. 실망도 했었어요(연구참여자 1).”

〈남한친구들에 비해 늦은 출발선, 열등감과 불안감〉

“한국애들은 어릴 때부터 자라서 한국문화에 익숙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자기가 (직업적으로)뭘 할지 정하고 그것만 위해 노력하잖아요. 공부도 많이 하구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 중간에 툭 떨어져 가지고 그때부터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짧은 기간에 그 사람들 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게 좀 힘들죠. 언제나 퇴보한다고 해야 할까요? 언제까지 그래야 할지 모르겠어요(연구참여자 4).”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병리적 문제 : 공황장애〉

“저는 안바뀌는거 같아요. ..과호흡이 와가지고 지금도 가끔 숨쉬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근

데 그걸 그냥 귀찮지만 참고 견뎌내면 괜찮데요. 한 번에 터진거죠. 지하철에서 쓰러지면 민망하잖아요. 근데 막 느낌이 오는 거예요. 병원갔죠. 옆 사람들이 도와주셔가지구요. (연구참여자 1)”

3. 북한사람에 대한 남한출생 친구들의 긍정적인 관심 및 지지체계

연구참여자들은 북한사람에 대한 남한출생 친구들의 긍정적인 관심과 질문을 통해 심리적 지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남한출생 친구들은 ‘북한은 살기가 어떤지’(연구참여자 2), ‘북한 사투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연구참여자 3) 등에 관해 질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위에서 언급한 남한출생 친구들의 편견어린 불편한 시선과는 다른 경험으로 그들의 긍정적인 정체성 형성과정에 도움을 준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긍정적 경험은 연구참여자들에게 남한출생 친구들이 모두 계산적이거나 이중적인 얼굴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케 하였다. 결국 연구참여자들은 지지적인 친구들과의 또래관계 경험을 통해 온전히 남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와 남한출생 친구들간의 경계짓기 사이에서 어떠한 정체성으로 살아갈지에 관해 내적 갈등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해나갔다.

〈남한출생 친구들의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

“‘..신기하다 북한에서 왔구나’ 이런 애들도 있고. ‘아 진짜? 나 처음 봐. 북한 언제? 살기는 언제? 애들은 언제?’ 이렇게 궁금해하는 애들도 있어요. (연구참여자 2)”

“저는 중학교 처음 갔을 때도 북한 사투리를 심하게 하고 있는 거로 생각했는데 애들이 와서 ‘북한 사투리를 한번만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엄청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지 않냐고’ 하니깐 아니래요. 그래서 한번만 해달래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투리를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저는 심하게 사투리 쓴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연구참여자 3).”

4. 온전한 남한사람 되기 및 남한출생 친구들 간 경계짓기

연구참여자들은 북한식 말투를 사용하는 순간 또래관계에서 열등한 사람으로 위치한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가급적 빠르게 ‘남한 말투’를 익히고자 하였고, 여러 적응 과업 중에서 언어적 변화를 우선순위에 놓인다. 남한출생 친구들과의 또래관계에서 억양과 말투의 차이는 친구관계에 거리감(연구참여자 2)을 가져오기 때문에 연구참여자들은 입남 초기 자신들의 말투가 온전히 한국식 말투로 바뀌지 않는 한 친구관계에서 말하기를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연구참여자 3은 또래문화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자신이 숨겨온 ‘북한 사람’의 정체감이 밝혀질 수도 있으므로 남한의 매체에서 잘 알려진 캐릭터들을 의도적으로 찾아

보며 외우곤 하였다. 이는 그녀가 친구들을 무리없이 사귄 수 있는 방법이자 북한사람이 아닌 남한사람으로 친구와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는 방법이다.

〈남한출생 친구들과 다른 북한식 말투〉

“거기에서는 익숙한 환경, 모든 것이 익숙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모두 다르니까 힘들죠. 특히 말투가 힘든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5).”

“한국에 와서 한국 말 따라하는 거 많이 했거든요. 아~ 진짜 티가 안 나가지고.. 애들이랑은 솔직히 처음엔 말 좀 안하고 싶구요. 그러니깐 거리감이 벌어질 때도 있죠(연구참여자 2).”

〈남한매체의 캐릭터 알기〉

“...친구들과 대화하기 위해 캐릭터들을 이를 악물고 외웠죠....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센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몰랐던 것도 금방 눈치를 채가지고 대화에 끼는 편이거든요. 저는 눈치봐서 애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하면서 금방금방 대화에 끼는 편이거든요! (연구참여자 3).”

그리고 연구참여자들은 남한출생 친구들이 고향친구들만큼 솔직하지 못하며, 동시에 인간관계에서 전략적인 모습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친구관계에서 연구참여자 1이 언급한 바와 같이 ‘싫으면 싫다’고 말해주는 친구를 좋은 친구라고 인식하였고, 이러한 남한출생 친구들의 특징을 꼽으며 심리적 경계를 짓고 북한 친구들은 남한출생 친구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솔직하지 못하고 전략적인 남한출생 친구들〉

“한국 친구들은 솔직한거 안 좋아하더라구요. 아양떠는거죠. 거짓말 치는거 닭살이에요. 그런 애들 너무 많아요. 물론 저희 고향도 아양떨고 이런 사람 있지만, 그래도 대체로 솔직하다고 해야 할까요? 솔직한걸 선호해요. 싫으면 싫다고 말해주는걸 선호해요. 근데 여긴 강제로 리액션을 하라 잡아요. 그게 사회성이라고 생각하는거 같아요(연구참여자 1).”

“저는 둔한 성격이긴 해요. 그래도 저도 머리가 있으니까 (돈)쓰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어느 순간 친구들에게 넘어가 있을 때가 있어요. 속고 넘어가 있는 거예요. 머리쓰는거죠. 북한친구들은 그러지 않습니다(연구참여자 5).”

그리고 연구참여자들은 남한출생 친구들과의 또래관계 경험을 하면서 ‘북한 사람’이라는 자존심을 자랑스럽게 내세웠다. 예컨대 연구참여자 3이 언급한 바와 같이 목숨을 걸고 강을 건

냈는데 무엇을 못하겠냐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거나, 북한에서 보았던 수없이 펼쳐진 은하수는 남한친구들은 알지 못하는 아름다운 경험이자 자신만의 고유한 문화적 자산이라고 말한다. 또한 남한에서 태어난 친구들과 놀러가서 그들은 잘 하지 못했던 나무에 불지피는 일을 보며 자신은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는 능력 역시 자신만의 장점이라고 말한다. 즉 연구참여자들은 남한출생 친구들보다 더 잘 되겠다는 의지(연구참여자 3)를 보이며, 남한사회에서 직업적으로 성취하고 성공하겠다(연구참여자 1)는 의지를 나타냈다. 또는 남한사회에서 간호사로 성공하겠다는 꿈(참 4)을 갖고, 미래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일을 만들어가며 의미있는 삶(연구참여자 2, 4)을 살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고향에서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은하계〉

“난 내 목숨을 담보로 다 해봤는데...개네가 뭘 해봤겠어요.. 가스레인지 불도 못키는 거예요, 우리는 펜션에 놀러가서 아궁이에 불 이렇게 피가지고 나무 패가지고 하고 했는데 뭐가 무섭다고 못하더라구요. 서울 하늘에도 별이 뜨긴하죠? 근데 북한은 그 달과 별! 반짝 반짝 은하수 같은게 다 보여요. 애네는 그 별 고작 몇십개있는거 보고 좋아하고 행복해하는거예요(연구참여자 3).”

〈북한사람으로서의 자존심, 성공에 대한 꿈〉

“내가 친구들과하고 같이 놀면서도 나쁘게 있어요. ‘애들보다 성공해야지!’라고 생각해요. 네가 이걸해? 그럼 나는 더 좋을 걸 할거야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가 나중에 어딜 취업해?’ 그럼 나는 나중에 너보다 더 좋은 회사를 취업할 거야. 이런 생각도 들어요. 친구가 있는데 인간적으로는 좋지만... ‘네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나는 더 잘 살거야’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미래를 생각해서 너보다 훨씬 잘 될거야’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성공한다는 생각도 높고 열등감도 엄청 높은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3).”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남한사회에서 소수자로 살아가고 있는 2014~2019년 탈북한 10~20대 북한이주여성들의 또래관계와 사회정체성에 관해 질적사례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총 4개의 대주제와 9개의 소주제의 개념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통합적 결론과 논의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북한 사회문화환경이 남한에 비해 학업 스트레스가 적고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지각하며, 북한에서의 친구관계는 의리가 있고 순수한 친구관계였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북한이주여성 청소년들의 사회적응과 사회적 지지의 측면에서 시사점을 갖는다. 사회적응은 개인과 사회적 환경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특히 청소년 시기의 학교라는 사회에서의 적응은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가 된다. 또한 청소년 시기의 사회 생활

적응은 자신의 욕구와 흥미에 대한 타인의 영향이 매우 중요하다(김경희·라만교·권재환, 2014; 김희영·양미경·곽수란, 2015; Weissman, 1975). 이러한 측면에서 그들은 북한에서의 일상을 남한에서의 삶과 비교하는데, 특히 남한사회에서 학업과 성취에 크게 의미부여하는 분위기에 적응해나갔다. 그러나 또래 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지지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사회적 지지는 사회 적응에 있어 긍정적 자기평가, 통제력, 자율성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주기 때문에(Thoits, 1995)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북한에서 학교는 학업에만 집중하는 장소가 아닌 조직생활과 사회정치 활동을 두루 하였던 학습경험을 언급하며, 이러한 환경의 차이가 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였다. 구체적으로 북한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의 양적 확보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의 ‘순수하다’는 말의 의미는 사사로운 욕심이나 친구가 모르는 전략적인 관계맺기의 방식이 아닌 상태를 말한다. 예컨대 친구가 향수를 갖고 싶는데 지불할 돈이 충분히 못할 경우 흔쾌히 친구들과 협력하여 향수를 지불할 수 있고, 생일파티때 식대비를 나눠내는 행위에 관해 ‘딱딱한 친구관계’로 표현하며 부정적 의견을 드러냈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남한출신 친구들이 어떤 방식으로 친구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지, 남한사회에서 친구는 어떠한 방식으로 맺어지고, 유지되는지 등 남한사회 전반의 또래관계 전반의 분위기와 문화를 배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참여자들은 북한사회에서 학업 스트레스 없이 충분히 자유롭게 친구를 만났던 경험과 보다 순수하고 합리적으로 계산하지 않는 방식을 회상하며, 북한에서의 순수하고 의리있는 친구관계를 그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북한이주여성 청소년들이 남한과 북한의 경계에서 북한에서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지만, 남한 또래 집단과의 관계보다 북한에서의 또래 집단에 대한 그리움이 크다는 것은 남한 또래 집단의 사회적 지지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통합적 관점의 과제로 남는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또래관계 유지에 방해가 된 요인으로 남한출생 친구들의 북한사람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꼽았고, 남한출생 친구들과 동일선 상에서 출발할 수 없다는 사실에 열등감, 불안 및 공황장애 등 부정적인 심리적 상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편견과 문화 적응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편견은 어떤 집단에 소속된 타인에 대해 단순히 그가 그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혐오적이거나 적대적인 태도를 갖거나 그 집단에 대해 불쾌한 특성을 갖는 것을 말한다(Gordon, 1966). 남한의 청소년들에게 세계 다양한 인종 및 민족에 대한 편견을 측정했을 때, 한국 청소년들은 특정 인종 및 국가에 대한 편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성택, 2003). 또한 다른 남한 대학생들의 편견 연구에서도 인종과 민족, 사회계층 등과 같은 문화적 이질적 집단에 대한 편견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정지연·김영환, 2012). 특히 북한이탈 청소년의 차별 연구에서도 차별 경험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아영아, 2017).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주 청소년들은 또래 관계에서 차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친밀감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기도 한다(서덕희, 2013). 본 연구에서도 북한이주

여성 청소년들이 입남 초기 한국에서 경제적, 문화적 제약을 지닌 자로 살아가며 학교생활 중 ‘북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불쾌감(연구참여자 2), 두려움(연구참여자 3) 등 부정적인 시선을 감당해야 했다. 친구들은 자신을 구경하러 오거나 아니꼽게 바라보는 친구들의 시선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자신의 ‘북한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낼지 여부를 결정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남한출생 친구들과 동등하지 못한 출발선으로 인한 열등감과 불안으로 몹시 괴로워했다. 이는 북한이주여성 청소년들이 느끼는 문화적응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이주청소년들의 경우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우울감 높거나 불안 요인을 유발하기도 한다(김린·박세훈·박경자, 2014; 이민지·장혜인·전진용, 2016). 이 연구의 연구참여자들 역시 모든 문화가 익숙했던 북한과는 달리 대중교통을 타는 등 생활상 적응도 쉽지 않았지만 학습면에서도 남한출생자들에 비해 매우 뒤쳐져 있으므로 따라잡기가 어려웠다. 또한 여성이라면 낯선해야만 한다는 남한사회의 외모관과 그 문화를 인식하며 자신의 신체상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도 했다. 이처럼 또래보다 자신의 경제적 상황뿐만 아니라 학습과 문화 전반에 관해 알지 못하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친구관계에서 참여자들은 열등한 존재로 위치하였다. 이에 연구참여자 1의 경우 지하철에서 쓰러지는 공황장애를 겪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이처럼 사회적 편견과 차별, 문화적응 스트레스 등은 북한이주여성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보다 원만한 친구관계 유지를 위해 북한식 언어 및 문화에서 남한식 언어와 문화로 동화되고자 하며, 계산적이며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남한출생 친구들의 친구맺기 방식에는 경계를 짓고 북한출생자들만의 리그를 형성하며, 자신들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심리문화적 자원들을 발굴해나갔다. 이는 정착과정 초기에는 내집단과 외집단의 갈등을 경험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속한 집단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더욱 우월해지기를 바라는 내집단 선호 현상과 연관된다. 내집단과 외집단은 쉼너(William G. Sumner)와 코저(Lewis A. Coser)에 의해 ‘우리’는 내집단, ‘그들’, ‘다른 사람’은 외집단으로 구분되기 시작했다(Sumner, 1906; Coser, 1956/1980). 그러한 면에서 북한 출신인 우리와 남한 출신인 그들의 갈등은 내집단과 외집단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집단과 외집단에 대한 특징은 내집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외집단은 저평가하는데 있다(Tajel and Turner, 1979; Branscombe, Ellemers, Spears and Doosje, 1999). 이는 북한이주여성 청소년들이 정착 초기에 북한식 말투로 인해 곤경에 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참여자 2는 말투 때문에 친구들과 말을 하고 싶지 않을 정도였다. 이는 말투에 국한되지 않는 데, 친구관계 유지를 위해 또는 자신이 북한출생자임을 숨기기 위해서는(연구참여자 3) 친구들이 눈치채지 못할 만큼 만화 캐릭터들을 ‘이를 악물고 외웠다’. 이처럼 친구관계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참여자들은 남한사회문화를 익히고자 발빠르게 적응해야 했다. 그리고 친구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에게 남한출생 친구들은 ‘아양 떨고’(연구참여자 1), ‘강제로 리액션’(연구참여자 1)을 하거나, ‘(돈계산에) 머리를 쓰는’(연구참여자 5) 모습들을 경험하

였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남한출신 친구들이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고향 친구들과는 무엇이 다른지 등에 관해 배워나갈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의식적으로 남한 문화에 동화되고자 하면서도 자신들만의 북한사람만의 고유한 문화 혹은 우월한 문화 요소들을 발굴해나갔다. 즉, 내집단과 외집단의 갈등 속에서 내집단의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예컨대 연구참여자 3이 언급한 바와 같이 남한출생 친구들과 펜션에 놀러가서 별을 보고 감탄하는 친구들을 보며 ‘고작 몇 십개의 별을 보고’ 감탄하는 일이 라든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지 못하고’ 무서워하는 남한출생 친구들을 보며 자신들이 지닌 문화적 경험 및 자원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넌 자신들의 지난 사건을 되짚어보고 남한출생 친구들과 출발선이 다를지라도 더 성공하고 잘 살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북한사람으로서의 자존심과 오기는 그들이 능력을 발굴하고 진로를 개척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는데 발판으로 삼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내집단과 외집단의 관계에서 내집단 선호가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이 속한 북한이주여성 청소년 및 북한이주민 집단에 대한 긍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넷째, 연구참여자들은 학교생활 중 일부 친구들을 통해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과 질문을 받으며 남한출생 친구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알아갔다. 이러한 과정은 자신이 ‘북한사람’이라는 사실에 위축되거나 불안한 마음 등에 위로가 되어주었고, 동시에 ‘북한인’에 대한 사실을 수용해나가며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친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게 하였다. 이는 이주 이후에 경험하는 이중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국경을 넘는 것이 자유로워진 이주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주민들은 둘 이상의 사회, 정치, 경제, 사회적, 문화적 관계를 지속하는 초국적 이주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Castles and Miller, 1993/2013). 이러한 면에서 북한이주여성 청소년들은 북한에서의 경험을 남한 출생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며, 두 문화를 경험하며 형성된 이중 정체성의 장점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몇몇 친구들은 북한에서 살기는 어떠했는지(연구참여자 2) 등 일상 생활에 관한 질문을 하였고, 북한말은 어떻게 하는지(연구참여자 3) 한번 해보라는 요청 등 북한의 언어사회문화에 긍정적인 호기심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러한 북한에 대한 진정 어린 관심과 긍정적인 친구들의 호기심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고향이 ‘보잘 것 없고’, ‘가난한 나라’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자신의 고향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아울러 연구참여자 2의 경우 북한에서 온 사실을 부정적으로 보는 친구들을 참여자와 함께 부정하고 참여자의 편이 되어주며, 한국에는 다양한 친구들이 있다고 설명해주는 등 편견 없이 대해주는 소수의 남한출생 학생들로 인해 힘을 얻는 경험도 있었다.

종합해 보면, 본 연구 결과는 또래관계 경험을 해오고 있는 10-20대 북한이주여성들의 경우, 사회적 소외, 경제적, 문화적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으로서 남북의 친구관계가 어떻게 다른지 인식하고, 친구관계 문화의 차이를 배우며, 친구관계 경험에서 개인이

지닌 적합한 기술과 문화적 자본을 발굴함과 동시에, 북한이주민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위치를 인정하며 자신만의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 연구의 방향에 관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소수 참여자의 주관적 경험을 탐구하였기에 일반화하여 이해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아울러 참여자들의 연령대는 10-20대로 여성이라는 점, 탈북시기가 한정되어 표집되어 일반화 시키기는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북한이주 청소년들의 또래 관계를 통한 사회정체성에 대한 심리적 요인들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일반화가 가능한 양적연구 혹은 혼합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양적 연구를 통해 사회적 편견이나 사회적 차별, 사회적 지지, 사회정체성, 문화적응 스트레스 등의 타당화된 설문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일반 북한이주민, 타 이주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북한이주 청소년들의 심리적 수준을 확인하여 긍정적인 사회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사회복지 실천 및 정책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주여성 청소년의 경우의 또래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적 지지가 강화되고, 일상 속의 차별 경험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별히 이주 배경 청소년들에게 감정, 관심, 친밀감 사랑 등을 포함하는 정서적 지지는 가족이나 또래 친구들의 수용, 긍정적 자기평가 등의 평가적 지지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박미정, 2016). 이에 북한이주청소년 및 청년 대상 뿐만 아니라 남한출생자들이 상호 간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검증된 문화이해 및 수용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상호 간의 고유한 문화의 강점과 자원을 파악해나갈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북한이주여성 청소년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떠한 일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는 자기효능감의 증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주청소년 및 청년들의 개인 내적으로 자기이해, 자아를 긍정적으로 확장해나갈 수 있는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대인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인성 관련 프로그램, 사회관계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경제적, 사회 및 문화적 체계 등 한국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기존 교육체계를 점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북한이주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중 정체성이 그들의 삶속에서 강점으로 발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사회시스템을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들이 경험한 두 국가의 문화는 타인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능력 등 타인과의 관계에서 수용 및 공감적 태도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그들이 지닌 다양한 경험은 창조적 사고로 발현되어 그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자원이 될 수도 있겠다. 물론 북한이주민들은 남한 사회 속에서 소수집단이고, 사회 적응의 측면에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도 나타나듯이 북한이주민은 남북의 경계 속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발견하고, 자신들이 지닌 자원을 발견해 나가기도 한다. 즉 북한이주민들의 적응과 문제에 초점을 두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그들이 지닌 고유한 문화, 자원 및 강점에 초점을 두어 서로의 다름 속에서 상호 간에 통합되는 경험 사례를 발굴해나가며 사회문화 통합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곽수란. 2014.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관계가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24(2): 1-24.
- 권옥현·허소정·김영애·이동훈. 2021. “학교 밖 청소년의 관계경험 탐색: Haslam 의 사회정체성 모델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3): 1255-1288.
- 김경준. 2010. “사회적 스티그마의 청소년에 대한 영향과 대응.” 《한국청소년연구》 21(3): 5-31.
- 김경희·라만교·권재환. 2014. “대학생이 지각한 교수의 지지, 학습동기 및 학업적응의 관계 모형 검증.” 《아시아교육연구》 15(1): 45-69.
- 김린·박세훈·박경자. 2014. “북한이탈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1(7): 55-87.
- 김명선. 2014. “탈북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과정 분석.”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미숙. 2004. 『북한이탈학생의 학교적응 실태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지영. 2004. “틀림의 타자 이론,” 《비평과 이론》 9(1): 49-80.
- 김희영·양미경·곽수란. 2015.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가 자아개념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인과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2(11): 407-440.
- 박노운·이은수. 2014. “집단적 자아정체성, 사회적 교환관계 인식 및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 《대한경영학회지》 27(6): 955-977.
- 박미려·양은주. 2017. “부모방임, 또래애착이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을 매개로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4(1): 263-284.
- 박미정. 2016. “사회적 지지가 이주배경 청소년의 사회 적응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다문화와 평화》 10(2): 53-68.
- 박윤숙. 2009. “북한이탈 청소년의 일탈행동과 해결방안.” 《아시아교정포럼》 3(2): 1-23.
- 박정숙. 2013. “북한의 교육제도와 사교육 열풍.” 《북한》 0(500): 130-137.
- 박지영. 2001. “사회사업적 관점에서 본 탈북청소년의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 분석.”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덕희. 2013. “이주민 집단에 따른 이주 배경 학생의 학교생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메타분석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6(2): 23-58.
- 아영아. 2017. “북한이탈청소년의 차별경험이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교정복지연구》 48(48): 53-75.
- 이민지·장혜인·전진용. 2016. “차별지각, 문화적응,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북한이탈주민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매개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1(3): 459-481.
- 이향규. 2006. “새터민 청소년 학교 적응 실태와 과제.” 《교육비평》 21: 193-207.

- 이현숙·유해숙. 2015. 탈북 청소년의 낙인 현상과 대응. 《민족연구》 62(62): 179-201.
- 임성택. 2003. “세계시민교육 관점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한국학생들의 고정관념 분석.” 《교육학연구》 41(3): 275-301.
- 전주람·최경. 2022. “10-20대 북한이주민들의 친구관계 경험에 관한 FGI 연구.” 《문화와 융합》 44(1): 569~588.
- 정서운. 2015. “탈북청소년의 또래관계 형성에서 나타나는 저해요인과 극복전략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지언·김영환. 2012. “이문화 집단에 대한 편견과 문화교류 역량을 중심으로 본 부산지역 대학생들의 문화적 역량.” 《시민교육연구》 44(3): 219-244.
- 정진경·정병호·양계민. 2004. “탈북 청소년의 남한학교 적응.” 《통일문제연구》 42(2): 209~239.
- 정재경·강민주. 2010. “북한이탈청소년이 경험하는 가족 및 친구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내적 통제성의 매개효과.” 《대한가정학회》 57(4): 485-498.
- 진혜경. 2016. “청소년의 사회갈등 인식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소속감의 조절 효과.” 《사회과학연구》 32(1): 283-306.
-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센터(2023). (<https://www.hub4u.or.kr/main.do>. 2023년 6월 1일 접속)
- 차문석·정은찬·권숙도·김지영·김진환·박계리·엄현숙·정진현. 2023. 『2023 북한 이해』. 국립통일교육원.
- Berndt, T. J. 1982. “The features and effects of friendship in earl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3: 1447-1460.
- Branscombe, N. R., Ellemers, N., Spears, R., & Doosje, B. 1999. The context and content of social identity threat. In: Ellemers N, Spears R, Doosje B. (Eds). *Social Identity: Context, Commitment, Content*. Oxford: Blackwell Publishers.
- Castles, S., Miller, M. J. 1993.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한국이민학회 역. 2013. 이민의 시대. 서울: 일조각).
- Coser, L. A. 1956. *The Functions of Social Conflict*(박재환 역. 1980. 갈등의 사회적 기능. 서울: 한길사).
- Downe-Wamboldt, B. 1992. “Content Analysis: Method, Applications, and Issues.”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13: 313-321.
- Erikson, E.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W.W.Norton & Company, Inc.
- Giles, H. and Johnson, P. 1981. The Role of Language in Ethnic Group Relations, In J. C. Turner & H. Giles(eds.). *Intergroup Behaviour*, Oxford:

Blackwells.

- Gordon, W. A. 1966. *The Nature of Prejudice*. Addison-Wesley Publishing(4th ed.).
- Jenkins, R. 1996. *Social Identity*. London: Routledge.
- Rubin, K. H., Root, A. K., & Bowker, J. 2010. "Parents, peers, and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A relationship perspective."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127: 79-94.
- Savin-Williams, R. C. & Berndt, T. J. 1990. Friendship and peer relations. In S. Feldman and G. Elliot(Eds.),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Seidman, I. 2013. *Interviewing as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for researchers in education &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Teachers College.
- Tajfel, H., Turner, J. 1979.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In W.G. Austin & S. Worchel(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Brooks, Cole: Monterey.
- Tajfel, H. 1981. *Human Groups and Social Categories: Studies in Social Psych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urner J. 1999. Some current issues in research on social identity and self-categorization theories. In: Ellemers N, Spears R, Doosje B. (Eds.). *Social identity: Context, commitment, content*. Oxford: Blackwell Publishers.
- Weissman, M. M. 1975. "The Assessment of Social Adjustment." *Arch Gen Psychiatry* 32(3): 357-365.

North Korean refugee women's peer relationship experience and social identity

Jun JooRam* · Kim Yujin** · Sohn, InBa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eer relationship experiences of North Korean refugee women living in South Korea.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a total of five North Korean refugee women who can talk about their peer's relationship experiences were selected as research participants, and data were collected in a semi-structured manner through in-depth interviews for about four months from May 2021.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peer relationships of North Korean refugee women who have relationships with their friends born in South Korea were drawn into four main themes and nine sub-themes : such as “Yearning for competitive adaptation in the Korean educational environment and longing for friends from North Korea”, “Prejudiced views and delayed start and inferiority complex from South Korean friends”, “Positive interest and support system from South Korean-born friends towards North Korean individuals”, and “Establishing boundaries between becoming a complete South Korean and South Korean-born friends.” This reflects the fact that the experience and maintenance of positive peer relationships of North Korean refugee women is very important in the process of forming their social identit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ractical alternatives for the adaptive peer relationship experience and maintenance of North Korean refugee women were presented.

Keywords: North Korean Refugee Women; Peer Relationships; Social Identity; Qualitative Case Study

투 고 일 : 2023. 05. 16.

수 정 일 : 2023. 06. 02.

확 정 일 : 2023. 06. 05.

* First Author, Lecturer, Department of Teaching, University of Seoul

** Co-author, 3rd year economics student, University of Seoul

*** Corresponding Author: Postdoctoral researcher, Dept. of Medical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에서의 일상적 삶과 미래의 바람에 관한 포토보이스

김묘정* · 하진이**

요약

한국에서 태어난 다문화 청소년과 달리 중도입국청소년은 이주 배경을 가지고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들을 말한다. 한국으로 이주한 후 이들은 가장 먼저 새로운 가족의 구성원이 되어야 하는 동시에 두 문화권의 언어를 습득해야 한다. 이들이 건강한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관심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사진을 이용한 포토보이스 방법으로 중도입국 청소년의 실제 한국에서의 일상적 생활을 통한 삶의 모습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고 둘째, 중도입국 청소년 개인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서 어떠한 질적 의미 해석을 하고 있는지 여부였다. 본 연구를 위해 한국에 거주 중이며, 현재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베트남 언어문화권 남녀, 중도입국청소년 다섯 명의 연구 참여자를 최종 선정하였다. 이후 약 3개월에 걸친 모임과 토의를 통하여 연구 주제를 정하였고,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4가지 범주의 대주제(나에게 한국에서의 생활은,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 나와 한국어, 나의 미래는)를 찾았고, 그에 따른 9가지 하위 주제(주말을 기다림, 친구가 필요해, 그리운 추억, 문제 해결은 친구와, 달콤하지만 쓴 맛, 한국어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한국인으로 한국에서, 높이 더 높이, 내 미래의 주인은 나)를 코딩하였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도입국청소년의 향후 한국 생활의 질 높은 삶을 위한, 그리고 친구 지지 및 사회적 지지망의 강화를 위한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

핵심 단어: 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 포토보이스, 일상생활

* 공동저자, 전남대학교 ■ fahrenheit@jnu.ac.kr

** 공동저자, 전남대학교 ■ tangbnguyet@gmail.com

I. 서론

AP 통신기자 닉 웃이 촬영한 사진 〈소녀의 절규 The Terror of War〉는 강마른 벌거벗은 소녀가 전쟁을 피해 울며 도망치는 듯한 사진이다. 이 사진은 베트남 전쟁의 참상을 한 장의 사진을 통해 독자들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1972년 풀리처 상을 수상하였다. 제72회 칸 영화제와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 영화 〈기생충〉이 황금종려상과 감독상 등을 수상할 때, 이와 함께 경쟁부문에 진출, 심사위원상을 수상한 영화 〈레 미제라블〉이 있다. 〈레 미제라블〉은 레쥬 리 감독의 첫 영화이다. 레쥬 리는 아프리카 말리 출신의 이민자로 파리 외곽 몽페르메유에서 성장했다. 17살에 첫 비디오카메라를 산 이후 레쥬 리는 몽페르메유를 촬영하며 ‘쿠르트라스메’라는 비디오 그룹을 결성하였고 자신의 카메라를 부당한 세상을 향한 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그는 수갑을 찬 아이를 폭행하는 경찰을 찍은 영상을 2008년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 영상으로 두 명의 경찰이 실제 징역 처분을 받는 사건이 일어났다. 레쥬 리는 프랑스의 영향력 있는 영화 감독이 되었고, 이후 그는 자신과 같은 이주 배경을 가진 청소년에게 말로 전하지 못하는 마음 속 언어를 카메라를 통해 표현할 수 있도록 카메라를 들려주며 무료 영화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레쥬 리 감독은 인터뷰에서 “이민자 가정에서 자라는 청소년들, 소외되고 교육받지 못하는 이주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에게는 분노를 표출할 도구가 필요하다. 카메라는 마음 속 감정의 표출에 더없이 좋은 도구이다. 가난한 지역, 폭력과 폭동이 상존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일깨워주고,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라는 말로 무료 영화 학교 설립에 대한 취지를 밝혔다.¹⁾

인간의 발달 과정을 태아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년기, 성인기 등과 같은 일련의 단계로 구분지어 볼 때 그 어느 한 단계도 중요하지 않은 단계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는 그 시기가 갖는 특성으로 인하여 인간의 발달 단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시기로 여겨진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옮겨가는 와중의 과도기적 단계로 이 시기의 청소년은 아동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른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에서 발생하게 되는 불안정과 불균형으로 긴장과 혼란을 경험하기 쉬운 단계이다. 이런 이유로 청소년을 흔히 “질풍노도의 시기”라 부르기도 한다(김향은·류경희·주석진, 2016). 청소년 시기에 경험하는 가족과 사회의 변화는 개인의 정체성 형성은 물론 인지 발달 및 인성 형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들 또한 그런 특별한 시기를 경험하는 경우이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한국인과 외국인의 국제결혼이 증가하였다. 2000년 이후 이러한 현상은 증가세가 둔화되고는 있으나 점차 더 보편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제 결혼 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을 하면서 본국의 자녀를 초청하여 데려온 경우와,

1) 연합뉴스. 2022. (<http://www.rfi.fr/en/africa/20220122-acclaimed-franco-malian-director-ladj-ly-opens-free-film-school-in-senegal-kourtrajm%C3%A9>). Internet: accessed December 1, 2022).

국제 결혼 가정의 자녀 중 외국인 부모와 본국에서 성장하다 청소년기에 재입국한 청소년의 경우를 포함한다(양계민, 2011). 이들이 중도입국 청소년이다. 그래서 중도입국청소년은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얻은, 소위 전형적으로 일컬어지는 <다문화가족 자녀>들과는 차이가 있다. 이주배경 청소년은 국내 출생, 중도입국, 외국인학생으로 나눌 수 있고 2021년 통계기준 국내 출생 76.3%, 외국인 학생 17.8%, 중도입국학생 5.9%로 중도입국학생의 비율이 가장 낮다(2021 교육부 기본교육통계자료, 5-6쪽). 그러나 중도입국 청소년은 다른 두 그룹보다 연령, 교육 수준 및 한국어 수용 능력 면에서 더 복잡하고 다양한 그룹이다. 새로운 가족의 형성으로 빚어지는 소속감 및 정체성의 변화, 출생국이 아닌 한국문화 적응에 대한 어려움, 부족한 한국어 능력으로 인한 언어장벽과, 제도권 공교육 진입 실패로 인한 학업 부진,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점차 선명하게 드러나는 정체성 혼란 등의 문제가 여타 다문화 배경 청소년들에 비해 척박하다는 문제 제기가 그동안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들에게 ‘이주’는 단순한 개인적 신상의 변화가 아닌 생활세계 전반의 심대한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유비·김기현, 2015).

중도입국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는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생활 적응 또는 부정적응과 관련된 주제(이병철·송다영, 2011), 그리고 한국어 능력과 관련된 연구(이춘양·김영순, 2018)가 대부분이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포토보이스 연구 방법을 사용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재차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어 실질적으로 중도입국 청소년의 일상 생활에서 느끼는 소소하지만 지속적인 특징과 거창하지 않으나 개인적인 부족함을 잡아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일상 재구성을 바탕으로 한국 생활 적응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본 연구에서는 먼저,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오랜 기간 형성한 라포를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에게 한국어보다 더 친근한 베트남어를 사용하도록 하여 기존 연구와 차별화를 꾀하였고,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닌 실제 생활의 모습을 관찰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사진을 이용한 포토보이스 방법으로 중도입국 청소년의 실제 한국에서의 일상적 생활을 통한 삶의 모습인 학교 생활, 일상 생활, 친구 관계 및 여가 생활 등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고, 둘째, 중도입국 청소년 개인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서 능동적인 의미 해석을 하고 있는지 여부, 예를 들어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미래는 어떤 것인가, 원하는 직업, 꿈꾸는 미래의 일상, 그리고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미래의 내 모습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유형 및 출신 국적은 다양하나, 본 연구에 참여한 중도입국 청소년은 베트남 어머니의 결혼이주로 한국에 들어온 사례를 살펴볼 예정이다.²⁾ 본 연구에 참여한 중도입국 청소년이 연구의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환경과 사건에서 능동적 의미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이를 통해 자신의 행위와 삶의 방식, 미래에 대한 열린 사고가

2) 2021년 12월 법무부 국가별 중도입국 자녀 통계에 의하면 한국에서 거주하는 중도입국 자녀가 가장 많은 출신 국가는 중국(1,218명), 베트남(853명), 필리핀 (274명), 그리고 기타 국가 (885명) 순이다. 중국 출신 가운데에는 비교적 한국 문화에 익숙한 경우가 많아 두 번째 대표성을 확보했다.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중도입국청소년 관련 한국에
서의 삶, 또는 미래의 바람과 관련된 연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기초 연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분석

1. 중도입국 청소년의 배경 및 특성

청소년기의 신체적 변화에는 심리적, 사회적 변화와 성격 발달이 동반된다. 부모, 교사,
다른 성인, 또래 모두가 십대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사회적 관계를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부모, 학교, 사회, 친구, 중재자, 문화 활동
에서 수집한 정보는 자존감, 자신감 및 행동을 만드는 기초가 된다.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들
과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의 감각을 계속 다듬으며 존재감을 키워 나가게 된다. 미래
의 진정한 시민으로 성숙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가 청소년기이다. 국가와 사회가 지속적인 관
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청소년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존재이다. 한 개인이 청소년기에
이르면 사회적 환경 속에서 자신과 타인 간의 사회적 관계를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성
숙해진다, 청소년들은 인지적 성장에 힘입어 자신의 생각은 물론 타인의 생각을 보다 잘 인
식할 수 있게 되어 다른 사람의 사고나 감정, 의도 등을 보다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게 되기
까지의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김향은, 2016). 이주배경 청소년의 성장 과정에서 가족과 사회
에서 마주하는 경험은 이들의 사회심리 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내 출생 다문화 청소
년은 부모 중 한 사람이 외국인이다. 다문화 가족 청소년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
에 한국 사회가 그들의 주요 발전 환경이다. 반면, 중도입국 청소년은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얻은(또는 그 반대) 소위 전형적으로 일컬어지는 다문화가족 아동들에 비하
여 이중, 삼중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사회적 배제와 이탈에 빠질 개연성이 높다(금명자 외, 2
006).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다문화가족 청소년들과는 다르게 한국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한국어 학습 등의 사전준비 없이 입국함으로써 한국사회 적응에 많은 어
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이병철·송다영, 2011). 특히 학업이 생애주기상 중요한 과업 과제
인 청소년 시기에 부모의 재혼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주를 해야 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
교 생활과 일상생활 적응을 더욱 어렵게 한다. 2018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다문화
학생은 106,583명이고, 이 가운데 중도입국청소년은 8,320명으로 7.8%를 차지하고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 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포토보이스 (photovoice)

연구자가 연구 대상의 이야기를 전달할 때 현장에서 경험을 공유하는 사진작가 또는 관찰자가 들려주는 사진 이야기(서사 또는 설명)가 있다. 그러한 연구 방법 가운데 하나가 포토보이스이다. 현재 ‘포토보이스(photovoice)’는 1990년대에 Caroline C. Wang과 May Ann Burris가 처음 개발하고 이후 개선한 점점 대중화되고 다양해지고 있는 이야기 전달 방법이다. 처음에 Wang과 Burris는 ‘포토보이스’를 “특정 사진 기술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커뮤니티를 식별, 대표 및 향상할 수 있는 프로세스”로 정의했다. 당시 포토보이스는 가난하거나 소외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도자와 정책 입안자에게 시급한 문제를 표명하는 사진 전시를 기반으로 집단행동을 일으키기 위해 고안되었다(Caroline Wang & Mary Ann Burris, 1997). 이 방법을 통해 정보 제공자는 내부자의 목소리를 특권화 하는 방식으로 사진을 통해 자신의 커뮤니티와 삶을 표현할 수 있었다. 사람들이 카메라를 단지 내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연구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것처럼 보고 사용하도록 독려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고, 그들이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촬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을 사용하여 참가자는 자신의 세계를 시청자와 공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직면하는 일상의 현실에 대한 시각적 증언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사진은 종종 참가자가 사진의 의미를 추가로 설명하거나 설명할 기회가 있는 인터뷰 또는 포커스 그룹의 주제가 된다. 포토보이스는 사회적 변화에 필요한 실천의 비판적 성찰과 대화적 성격을 자극하는 참가자 생성 사진의 사용을 강조한다(Quaylan Allen, 2012). 시각적 기록을 통해 사회 현상을 조명하고 사진 유도를 통해 사회 문제에 대한 미묘한 이해를 제공하는 참가자 사진의 능력은 질적 방법으로써의 힘과 가능성을 말해준다. 하나의 방법으로 포토보이스는 단순히 언어로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에 더해 사람들에게 표현 방식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언어 능력이 제한적이고 현지 언어에 능숙하지 못하거나 삶의 세계에서 복잡한 감정적 경험을 가진 다양한 그룹에 도움이 된다. 포토보이스 참가자의 사진은 여러 가지 주제의 빈곤층과 사회의 약자들(김민호, 2019; 최재완, 2016; 김찬미, 2020), 청소년(김시아, 2019; 김민아, 2017; 양혜진, 2016; 임정아, 2017), 농촌 및 도시(김병연·조철기, 2021) 지역 사회를 포함하여 다양한 지역 사회 환경과 다양한 인구에서 사용되었다. 또한 이 접근 방식은 사회학(허원빈, 2019; 신인순, 2021), 건강 과학(최재섭, 2019; 김경오, 2013; 최윤, 2020), 커뮤니케이션(선혜연, 2022; 임윤서, 2022) 및 교육(박진희, 2021; 이옥희, 2021)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채택되었다. 현대 사회에서 한국 청소년에 대한 문제는 연구자들의 관심을 많이 끄는 분야이다. 포토보이스 연구 방법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성소수자의 커밍아웃과 아웃팅 경험(김진미, 2013), 학교폭력 예방(양혜진, 2016, 범죄경험(김민아, 2019), 코로나 시대 청소년의 일상생활(권보람, 2022), 발달장애청소년의 자립생활(손성화, 2021) 등이 여러 가지 연구 영역에 있었다. 그러나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 포토보이

스 방법을 사용한 연구는 거의 없다.

박은혜·심혜선·마닥마(2018)는 이주배경 청소년이 바라본 사회통합은 어떠한가라는 연구 문제를 바탕으로, 사회적 소수자인 이주배경 청소년의 입장에서 바라본 사회통합의 의미와 통합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통합의 방법에 대해 탐색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 사회에서의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 복지적 정책 및 실천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국적은 몽골 3명, 중국 3명, 우즈베키스탄 1명이고 성별은 남자 2명, 여자 5명이다. 한국 거주기간은 2년에서 11년이며, 학년은 대학교 1학년 3명, 3학년 2명, 4학년 2명이다. 이주배경은 유학을 목적으로 온 경우가 4명, 부모의 한국 취업으로 온 경우가 2명, 어머니의 한국남성과의 재혼으로 온 경우가 1명이다. 이 논문의 연구 참여자들과 의사소통하기 위해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포토보이스 연구 방법 설명에서 저자는 이주민들은 사회구조적 환경으로 인해 자신들의 목소리로 자신들의 의식을 증언할 수 없는 소수자로서 우리 사회의 주류 계층이 만들어 놓은 언어 속에 갇혀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말하는 언어는 그들의 언어가 아닌 외부의 담론일 수밖에 없으며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 또한 연구자의 목소리였다고 서술한다.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모국어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논문의 한계점이 될 수 있다. 이재희·김기현·라미영(2014)는 포토보이스라는 방법을 통해 새롭게 등장한 한국의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생생한 경험을 이들의 목소리와 이들이 만들어내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탐색해 보았다. 여섯 명의 참여자는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문화 배경을 가진 중도입국청소년이다.

포토보이스 활용 연구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포토보이스는 참여자 주도형 연구방법(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PAR)이다. 연구참여자는 자신이 현재 속해 있는 환경과 맥락에서 발생한 연구 주제에 대하여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사진으로 표현하고 그 사진에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드러내게 된다(Wang, 1999). 포토보이스를 통해 얻어진 사진들은 때로 포토보이스 연구 주제와 관련이 있는 정책 결정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공유하는 단계를 거치기도 하는데 주로 공공 전시를 통해 이루어진다. 연구의 결과를 이해 관계자들이 공유함으로써 연구 참여자가 직접 찍고, 선정하고, 스토리를 제공한 자료는 평면적 자료보다 더 깊이 있는 울림과 힘을 가지게 된다. 둘째, 포토보이스는 실천적 연구 방법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포토보이스 연구는 어느 한 사회에서 문제를 담고 있는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연구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개선책을 제공하며,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안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Latz, 2018; Latz et al., 2016; Wilson et al., 2007). 마지막으로, 포토보이스 연구는 사진과 언어가 결합된 개념 예술(conceptual art)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Wang(1999)은 연구참여자가 직접 찍은 사진 속에 담긴 메시지의 의미가 명백하게 겉으로 표출될 수도 있고, 혹은 감추어져 있기도 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모두가 사진에 대해 지속적인 토론을 하며, 사진에 담긴 이미지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숨은 메시지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일상생활

잭 더글러스의 일상 생활의 이해(1970)로 거슬러 올라가는 사회학의 연구 대상으로 다양하게 접근되는 일상 생활은 일반적으로 행동, 수면, 직장 경험, 대화 시간과 같은 다양한 일상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로 수행된다. 일상 생활 사회학에서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일상 생활에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또는 사람들은 일상 생활을 어떤 절차로 조립하는지 등을 분석한다. 앙리 르페브르의 비판 이론에서 일상생활은 자본주의 하에서 어떻게 억압적 모순을 보여주는지 조사한다(옥스포드, 사회학사전 <https://www.encyclopedia.com/social-sciences/dictionaries>).

일상생활은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항상 거기에 있는 것>으로 <당연히 여기는 take for granted>경험적 세계를 일컬으며, 과거에는 지나쳤으나 현재에 존재하고, 미래에 내가 살게 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세계이다(Boss & Doherty, 2003). 일상생활은 누구나 영위하는 것이지만 과학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일상적 삶인 일상생활의 현실은 사회적 실재를 이해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Schutz, 1967). 일상생활은 습관적으로 개인이 누리는 생활이 아니라 개개인의 일상생활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제도 및 신념, 그리고 가치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를 유지하고 존속시켜주는 기능을 하게 된다 (Park & DLRA, 2008). 일상생활을 통해 습관화된 인간의 활동은 사회문화적 제도와 신념 및 가치가 개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 스며 있는 것이므로 오히려 한 개인의 생활에 사회적 모습이 적절하게 반영되는 측면이 있다(Kim, 2003). 즉, 일상생활은 사회의 각 수준을 잘 반영하고 있는 축소판처럼 일상생활을 통해 사회 전체의 구조까지 확대해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Yoon, 1996). 현대사회에서 일상생활은 진부하거나 의미 없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오히려 중요한 동향으로서 그 위상이 높아졌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삶과 경험을 연관시키며 친숙하고 특별한 의미로 받아들여진다(Lee, 2019). 그러므로 일상생활은 현대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소하고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매일의 활동에 주목하여 청소년의 일상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은 청소년의 삶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는 데에 효과적일 수 있다. 특히,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처럼 가족의 재구성과 환경의 변화로 인해 일상생활의 재조정과 적응이 불가피한 시점에서 일상생활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은 가장 본질적인 사회적 실재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청소년의 일상생활 관련 선행연구로는 경험표집법 또는 시간일지법을 이용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평소에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어떻게 시간을 보내며 어떠한 정서를 느끼는지에 대한 일상연구가 이루어져 왔다(Choi et al., 2003; Lee, 2009b, 2010; Lee et al., 2012; Lee & Chung, 2020; Lee & Lee, 2015). 이러한 방법은 일상생활을 생생하게 잡아내며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나, 비용적, 시간적 부담이 존재한다. 특히 연구참여자가 청소년일 경우 청소년의 관점에서 그려진 일상에 대한 질적 연구가 필요하게 된다. 이

런 연구 환경에서 포토보이스 연구 방법은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생각과 감정이 잘 담기도록 일상의 장면을 연구 참여자가 직접 촬영하고, 이를 타인과 공유하는 연구방법이다. 특히 언어적 소통이 자유롭지 않은 중도입국청소년의 관점에서 일상생활의 인식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파악하는 데에 유용하다. 이재희 외(2014)의 연구에서는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 적응, 한국 사회 문화에의 원만한 적응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 자신의 진솔한 일상의 내면적 표현에 중점을 두었기에 차별화를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중도입국청소년의 모국어를 사용하도록 하여 한국어 사용으로 인한 소통의 미흡함을 최대한 낮추고자 노력한 것에 큰 차이가 있다.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포토보이스를 활용한 질적 연구이다. 연구 참여자는 베트남 배경을 가진 남녀 중도입국청소년 5명이다. 자료 수집은 포토보이스를 기본으로 연구 참여자 그룹 모임 및 개별 모임, 그리고 메신저를 활용한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졌다. 베트남 배경을 가진 연구자가 베트남어로 의사소통을 하였고, 추후 데이터 번역 작업을 거쳐 분석을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가장 먼저 기초 설문지에 응답함으로 기초 정보를 제공하였고, 연구에 동의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 도출을 위해 연구 참여자는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한 대화를 자유롭게 나누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자의 주관적 개입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가장 자주 생각하는 일상은 무엇인지,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인지 자유롭게 공유하도록 하였고, 키워드를 메모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가장 큰 관심사는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였고,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도출하였다. 연구 문제는 첫째, 사진을 이용한 포토보이스 방법으로 중도입국 청소년의 실제 한국에서의 일상적 생활을 통한 삶의 모습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고, 둘째, 중도입국 청소년 개인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서 능동적인 의미 해석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연구하고자 한다. 포토보이스를 통한 사진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고유한 경험을 담고 있지만, 이 사진에 언어적 의미가 부여된 이후 연구참여자의 경험은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다른 사람에게는 물론 관련 업무 관계에 있는 정책 결정자와 사회에 가치 있는 의미로 다가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이는 추후 정책 개선 및 사회적 변화 또한 도모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을 탐색하는 데에 유용한 연구방법이다. 특히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충분하지 않은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 사진과 그들 내면의 이야기는 의사소통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어 비언어적 소통 방식의 하나로도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1. 연구 참여자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센터에서 밝히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은 국내 출생, 중도입국, 외국인 학생으로 이 가운데 중도입국 자녀란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와 함께 중도에 국내 입국한 자녀를 일컫는다. <표 1>에서 보면 한국에서 거주하는 국제결혼가정 및 외국인 가정 자녀의 구분을 알 수 있다. 2018년 여성가족부 통계 기준, 전체 중도입국 청소년 94,524명 가운데 한국에서만 성장한 수를 제외한 15,335명이 본 연구의 전체 집단이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 참여자는 연구자가 참여하는 대안학교에서 모집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모집 기준은 먼저, 이주 배경을 가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도입국청소년이어야 한다. 두 번째, 본 포토보이스 연구 참여를 위해 다른 참여자와의 그룹 토의가 가능해야 한다. 세 번째, 본 연구에 참여한 후 사진과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이어야 하고, 연구 동의가 있어야 한다. 연구 참여자 선정을 위해 연구 계획과 연구 목적, 과정 등을 구두로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자 모집 당시 7명이 연구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이후 개인적 사정으로 2명이 중도에 연구 참여를 취소하였고, 최종 5명이 연구 참여자로 선정되었다. 연구 대상자 전체 집단은 <표 1>을 통해, 그리고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 특성은 다음의 <표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 연구 대상 전체 집단 - 중도입국 자녀의 출신국 통계

구분	2017.04	2017.09	2018.06	2019.12	2020.12	2021.12
계	8,637	9,434	9,892	4,112	3,587	3,240
국가	중국	6,307	6,734	7,003	1,691	1,427
	베트남	899	1,173	1,260	1,249	1,038
	필리핀	284	308	334	302	323
	기타	1,147	1,219	1,295	870	799

출처: 법무부(2021)

- 법무부는 한국으로 결혼이민 온 결혼이민자의 전혼관계에서 출생해서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미성년과 귀화자의 자녀(국내출생 자녀 포함)를 중도입국청소년(법무부는 ‘중도입국자녀’로 분류)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3,240명의 중도입국자녀들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주1) 2015년 8월 이후 미성년 연령은 만18세 이하임
- 주2) 방문동거(F-1-52), 거주(F-2-2), 영주(F-5-3) 현황의 합계이며, 거주(F-2-2), 영주(F-5-3) 현황에는 결혼이민자의 전혼관계 출생자녀뿐만 아니라, 귀화자의 자녀(국내출생 자녀 포함) 등도 포함됨.

〈표 2〉 연구참여자 정보

순서	학생	출생연도	최초 한국 입국 시기	현재 학년	한국어 능력	출신국
1	A	2004	2021년 11월	고등 2학년	초급	베트남
2	B	2004	2021년 10월	고등 2학년	초급	베트남
3	C	2007	2019년	중등 3학년	초급	베트남
4	D	2005	2021년 10월	고등 2학년	초급	베트남
5	E	2008	2019년	중등 3학년	중급	베트남

2.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2022년 9월 20일부터 10월 초까지 연구 참여자 모집을 시작하여 10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포토보이스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같은 다문화 대안 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미리 알고 있었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자도 연구 참여자와 오랜 기간의 교수 학습을 통해 친근한 상태였다. 이렇게 오랜 기간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 형성된 라포를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에게 한국어보다 더 친근한 베트남어를 사용하도록 하여 기존 연구와 차별화를 꾀하였다. 사진을 선정하고 그 사진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은 한국어 능력과는 크게 상관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였고, 연구 참여자로 하여금 편안하게 언어적 불편함 없이 표현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본 연구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연구자 또한 베트남 배경을 가지고 있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중도입국청소년들은 자신의 견해와 생각을 베트남어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다.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목적이 아니므로 베트남어를 사용하는 것에 제약을 두지 않았고, 그 덕분에 연구 참여자들은 그들의 찍은 사진을 어렵지 않게 꺼내고 열정적으로 토론에 참여했다. 본 연구의 데이터는 이런 이유로 1차 자료의 경우 베트남어로 작성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연구 참여자와 함께 데이터 수집을 진행한 연구자의 번역본인 2차 데이터이다.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연락처를 확인한 후 본 연구 관련 내용 및 논의를 함에 페이스북과 메신저를 활용하였다. 총 5회기 동안 모임을 하였고 한 회기는 약 2시간 동안 진행하였다. 1회기에서는 중도입국청소년 7명에게 연구의 목적과 포토보이스 연구 방법을 설명하였다. 연구 초기 7명에서 최종 5명이 포토보이스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2회기에서는 주제 선별을 위한 중도입국 청소년의 여러 가지 문제와 학생들의 희망에 대해 토론했고 사진의 주제를 선택하였다. 카메라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며, 최근 또는 과거에 자신이 찍은 사진도 제출이 가능하다는 데에 모두 동의하였다. 회기별 연구 참여자와의 모임 및 활동 내용은 다음의 〈표 3〉으로 작성하였다. 사진 주제는 〈포토보이스 토의 질문 SHOWed 방법〉 5가지 질문을 활용하여 최종 4개 항목을 결정하였는데 참고 질문과 최종 선정 질문은 다음과 같다.

〈표 3〉 포토보이스 토의 질문 SHOWeD 방법

1. 사진 속에 무엇이 보이나요? (What do you **See** here?)
2. 사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What is really **H**appening here?)
3. 이것은 우리의 삶과 어떠한 관계가 있나요? (How does this relate to **O**ur lives?)
4. 이러한 상황이나 걱정, 강점은 왜 일어나고 있나요? (**W**hy does this situation, concern, or strength **e**xist?)
5.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What can we **D**o about it?)

출처: Wang(1999: 188); 박미영 외(2020)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 최종 선정한 질문의 대 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나에게 한국에서의 일상생활은 어떤 삶인가, 두 번째,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이고 누구인가, 세 번째, 나와 한국어의 관계는 어떠한가, 나에게 한국어는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내가 생각하는 나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 내가 원하는 나의 미래는 어떠한가 등이다.

〈표 4〉 포토보이스 회기별 연구참여자 모임 및 활동

회기	수행 활동
1회기	• 연구의 목적 설명 • 사전 안내 - 연락처 확인 및 데이터 수집 일정 및 모임 일정 논의 • 포토보이스 연구 방법 소개 • 질의응답 시간, 일지 작성
2회기	• 사진촬영 주제 선정을 위한 토의 및 질의응답 • 주제 선정 • 주제 관련 사진 촬영 • 개별 면담 및 토의, 일지 작성
3회기 - 5회기	• 촬영한 사진의 공유와 토의 • 사진 선정 및 스토리 작성 • 사진과 스토리 제출 안내 및 번역 예정임을 공지 • 메신저 활용을 통한 추가 수정 • 연구 참여 관련 후기 공유

본 연구의 참여자에게는 연구 윤리 관련 설명을 통해 연구 참여자의 정보 및 수집된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렸다. 연구 참여 동의는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설명함과 동시에 구두 및 서면으로 받았으며, 또한 연구 참여자는 연구 진행 과정에서 언제든지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 존중됨에 관한 설명을 제공받았다.

3. 텍스트 자료 분석 방법

Braun & Clarke (2006)가 주장한 여섯 단계의 주제 분석법(Thematic Analysis)를 다음과 같다. 먼저 1단계에서는 자료와 친숙해지기(familiarizing yourself with data) 과정을 가진다. 이 단계에서 연구자는 분석할 원자료를 보지 않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깊게 살펴보는 과정을 거친다. 이 단계의 목적은 연구를 위해 수집한 데이터의 본래 의미와 의도를 잘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초기 코딩(generating initial codes)을 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연구자는 시간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많은 잠재적 주제 및 패턴을 도출하고, 이 초기 코딩 자료가 추후 여러 주제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며 포괄적 코딩을 하게 된다. 세 번째 단계 주제 찾기(searching for themes)에서는 초기 코딩 자료를 마인드맵을 통해 시각화하기도 하며 잠재적 주제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때, 잠재적 중심 주제 혹은 하위 주제와 같은 층위 관계를 염두에 두며 분류하도록 한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주제 재확인하기(reviewing themes)를 하게 된다. 주제 재확인하기는 하나의 잠재적 주제 안에서 코딩자료들이 성격이 비슷한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를 확인하는 내부 동질성과, 서로 다른 잠재적 주제들의 특징이 구별되는지 확인하는 외부 이질성을 검토하게 된다. 또한, 각각의 잠재적 주제가 원자료의 의미를 최대한 정확하게 대변하는지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점검하도록 한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주제 정교화하기 및 이름 부여하기인 명명하기(defining and naming themes)를 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잠재적 주제들 중에서 상위 주제 및 하위 주제를 최종 결정하고, 선정된 각각의 상위 주제와 하위 주제에 이름을 붙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단계에서는 보고서 작성하기(producing the report)를 한다. 이 단계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제시한 사진과 내러티브 내용을 바탕으로 상위 주제와 하위 주제에 부합하는 의미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서술하도록 한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Wang과 Burris(1997)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 사진 선정 작업(selecting), 맥락화 작업(contextualizing),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드화(codifying)의 세 단계로 먼저 진행되었다. 이후 대주제와 하위 주제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사진의 선정은 연구에서 중요하게 토의하게 될 내용이므로 연구 참여자가 자율적으로 하였고, 연구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그룹 토의, 개별 면담, 메신저 활용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경험과 스토리를 구체화하는 맥락화 과정을 거쳤다.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는 연구 참여자의 맥락화 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하며 주요 문제 또는 주제를 코드화하는 작업을 공동으로 주도하였다. 연구 참여자로부터 데이터 수집이 마감된 이후, 연구진은 주제 도출을 위해 다음의 단계를 따랐다. 먼저,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가졌다. 자료는 연구 참여자가 제출한 사진, 텍스트 스토리, 참여 관찰 노트, 진행 일지 등이다. 이후 2명의 연구자는 주제 분석 절차에 따라 텍스트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고, 내용을 숙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차 베트남어 원시 데이터를 번역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번역 과정에서 입력한 텍스트를 사용하여 전사의 과정은 거치지 않았다. 내러티브 내용을 숙지한 이후

연구자는 각 어절과 문장 단위에 각각 개방 코드를 생성하였다. 비슷한 개방 코드를 묶고, 그것이 의미하는 개념의 정도에 따라 점차 상위 개념으로 통합하였다. 반복된 작업을 거친 이후 연구자는 하위 주제를 도출하였다. 텍스트 분석 이후 연구자는 논의를 통해 연구에서 제시할 사진을 선정하였다. 사진의 선정은 연구 주제를 잘 표현한 것, 중도입국청소년의 일상적 삶과 그들의 이슈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리고 텍스트 스토리를 참고하여 의미 있는 경험을 드러낸 사진 등이다. 사진 선정 과정에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의중과 내러티브가 왜곡되지 않도록 최대한 유의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첫째, 사진을 이용한 포토보이스 방법으로 중도입국 청소년의 실제 한국에서의 일상적 생활을 통한 삶의 모습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고, 둘째, 중도입국 청소년 개인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서 능동적인 의미 해석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 방법으로 포토보이스를 적용하였고, 베트남 언어문화권 배경을 가진 중도입국청소년 5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약 3개월에 걸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 기초 정보를 바탕으로 연구에 참여한 중도입국청소년의 특징을 간략하게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에 참여한 5명의 청소년은 모두 대안학교에 재학 중이고 일반 공교육 진입은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쉽지 않은 상태에 있다. 출생연도는 2004년생에서 2008년생이고, 최초 한국 입국 시기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로 한국어 능력은 초급에서 중급 수준이다. 한국 입국 이후 꾸준히 한국어 학습을 하고 있으나 제도적 결함과 적절한 언어적 상호 작용의 부재로 원하는 만큼 언어 능력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 모두는 베트남 출신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출생한 형제가 있다. 연구 참여자 대부분은 한국어로 일상적 소통은 가능하고 한국 문화에도 처음보다는 익숙해진 상황이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참여자도 있다. 휴대전화 사용에는 모두 능숙한 편이고, 베트남어를 사용하는 데에 아직 더 익숙하다(연구 참여자 정보 <표 2> 참고).

1. 워드 클라우드를 활용한 키워드 시각화 기초 작업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는 태그 클라우드(tag cloud)라고도 하는 빅 데이터 분석 기법 중의 하나이다. 이는 분석 대상의 텍스트에서 많이 언급된 수만큼 키워드를 크고 굵게 보여주는 시각화 작업이다. 크고 굵은 글씨는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심층 분석에 앞서 텍스트 데이터의 특징을 직관적으로 도출하기 원할 때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 정리하면, 워드 클라우드는 분석 대상 텍스트의 키워드 시각화 작업을 도와주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데이터 준비>과정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 전체를 하나의 파

〈표 5〉 포토보이스 분석 결과 - 대주제 및 하위주제

대주제	하위주제
나에게 한국에서의 생활은	주말을 기다림
	친구가 필요해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	그리운 추억
	문제 해결은 친구와
나와 한국어	달콤하지만 쓴 맛
	한국어와 친구가 되고 싶어
나의 미래는	한국인으로 한국에서
	높이 더 높이
	내 미래의 주인은 나

1) 나에게 한국에서의 생활은

첫 번째 대주제는 〈나에게 한국에서의 생활은〉이다. 이 주제는 연구 참여자 개인의 일상을 생각하며 한국에서의 삶이 어떠한지를 사진으로 표현하는 것이었다. 일상의 생활에 불편함이 있는지, 어떤 시간이 가장 행복한 때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주제였다. 학기 중에는 학교 생활이 대부분이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삶이다 보니 연구 참여자 공통으로 나온 응답이 〈학교〉와 〈주말〉의 이분법적 서술이었다. 이런 이유로 이 영역에서의 하위 주제로는 〈주말을 기다림〉으로 분류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베트남어와 한국어를 번갈아 학습하고 있다. 대안학교 수업 일정에 따라 태권도 수업도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이 있고 주말에는 혼자의 시간, 자유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한국에 와 있는 베트남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메신저로 베트남에 있는 친구와 시간을 채팅을 하기도 한다. 하위 주제에 대한 응답 분석은 다음과 같다.

■ 주말을 기다림

〈그림 2〉 금요일 수업이 끝나면 친구와 놀기



하루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저녁 시간이다. 저녁은 내가 혼자 공부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시간이기 때문이다. 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느낌이 정말 좋고 나머지 시간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일주일에 토요일과 일요일 2번의 휴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일요일을 가장 좋아한다. 토요일에는 집안일, 요리 등을 하고 일요일에는 내가 좋아하는 취미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 그렇게 시간을 쓴다. (참여자 1)

나는 월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을 좋아한다. 월요일에는 베트남 선생님과 베트남어 수업을 하게 된다. 목요일에는 태권도 수업 있고 금요일은 일주일의 마지막 수업이 있는 날이다. (참여자 3)

하루 중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저녁 시간이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며 하루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다. 일주일 동안 나는 주말을 가장 좋아한다. 잠을 조금 더 자고, 휴식을 취하고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이다. (참여자 4)

금요일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날이다. 왜냐하면 일주일 중 금요일에 학교 마지막 수업이 있고 다음 날은 쉬는 날이기 때문이다. (참여자 5)

2)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

두 번째 대주제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 주제에서는 정신적이거나, 또는 물질적인 것, 그리고 사람이나 동물 등 각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사진으로 표현하는 것이었다. 애완동물이나, 물건, 나무와 식물 등 모든 것에 구애됨이 없이 본인의 생각을 가장 잘 투영하는 상징적인 것을 찾아 사진을 찍도록 하였다. 하위 주제로는 첫 번째, <친구가 필요해>, 둘째, <그리운 추억>,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은 친구와> 등 세 가지로 범주화하였는데, 연구 참여자들은 필요한 것부터 어려울 때 필요한 사람,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모두를 <친구>라고 서술하였다. 청소년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인 또래 집단과의 애착이 증가하는 시기에 부합하는 응답이라고 분석한다. 하위 주제별 응답 분석은 다음과 같다.

■ 친구가 필요해

〈그림 3〉 이렇게 많은 나의 친구들



한국에 오기 전 베트남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이다. 현재 제가 원하는 것은 베트남에 돌아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돌아다니는 것이다. 베트남에서 친구들과 더 많은 추억을 쌓지 못한 것과 학교 생활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해 조금 아쉽다. 나는 베트남에 아주 좋은 친구들이 많고 베트남으로 돌아가 친구들을 만나고 싶다. (참여자 4)

■ 그리운 추억

〈그림 4〉 나의 가족(왼쪽) 마지막 캠프파이어(오른쪽)



현재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베트남에 돌아가서 가족, 친구들과 설날을 축하하고 베트남 전통 음식을 먹는 것이다. (참여자 1)

이 캠프 파이어 사진은 친구들과 베트남 학교에서 활동을 하다가 찍은 것이다. 이것은 내가 12살 때 한국에 오기 전의 기억이다. 그날 너무 즐거웠고 이 기억이 너무 그립다. 지금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베트남에 돌아가 베트남 음식을 먹으며 친구와 가족을 만나는 것이다. (참여자 3)

■ 문제 해결은 친구와

〈그림 5〉 나의 친구는 해결사



한국 생활에 문제가 있는 경우 나는 친구를 만나거나 온라인으로 이야기한다. (참여자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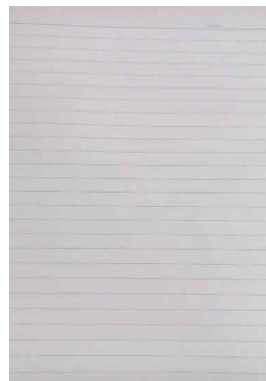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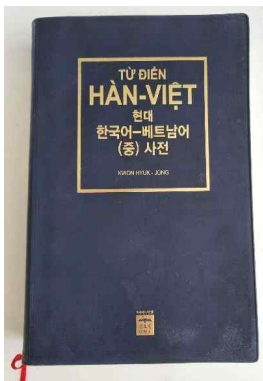
3) 나와 한국어

세 번째 대주제는 〈나와 한국어〉이다.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 한국에서 태어난 다문화 청

소년과는 달리 이주 이전 국가에서 사용한 첫 언어 (이 경우 한국으로의 이주 이전에 사용한 언어를 모국어라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추후 이들이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고, 인지적 발달과 함께 언어 능력이 향상되는 경우 모국어와 한국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를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현재의 한국어는 외국어가 되고 외국어의 습득은 어느 언어를 막론하고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필요한 영역이다. 이런 이유로 언어 영역을 질문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이 주제에서는 한국어 학습 경험, 한국어로의 의사소통 정도를 본인이 생각을 가장 잘 투영하는 상징적인 것을 떠올려본 후 사진을 찍도록 하였다. 하위 주제로는 첫 번째, 〈달콤하지만 쓴 맛〉, 둘째, 〈한국어와 친구가 되고 싶어〉 등 두 가지로 범주화하였는데,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어와 관련하여 꼭 필요하고 빨리 습득해야 하는 언어능력이지만 마음처럼 쉽지만은 않은 생생한 느낌을 전하고 있다. 사회언어학자 델 하임즈는 언어 (모국어 및 외국어 포함)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인과의 상호작용임을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 가족이나, 친구, 또는 주변인과의 충분한 언어적 입력량이 절대 부족할 수 있음이 드러난 결과라 분석된다. 특히, 청소년기 언어 능력의 향상은 일상적인 부분과 학문적인 부분을 동시에 고루 발달시켜야 일상 생활은 물론 수학, 과학, 역사, 지리 등 교과 학습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된다. 그렇지만 한국 내 대안학교의 한국어 교육 시스템으로는 이를 보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므로 이 또한 개선과 질적 변화가 필요한 영역이다. 한국어 학습 관련 하위 주제별 응답 분석은 다음과 같다.

■ 달콤하지만 쓴 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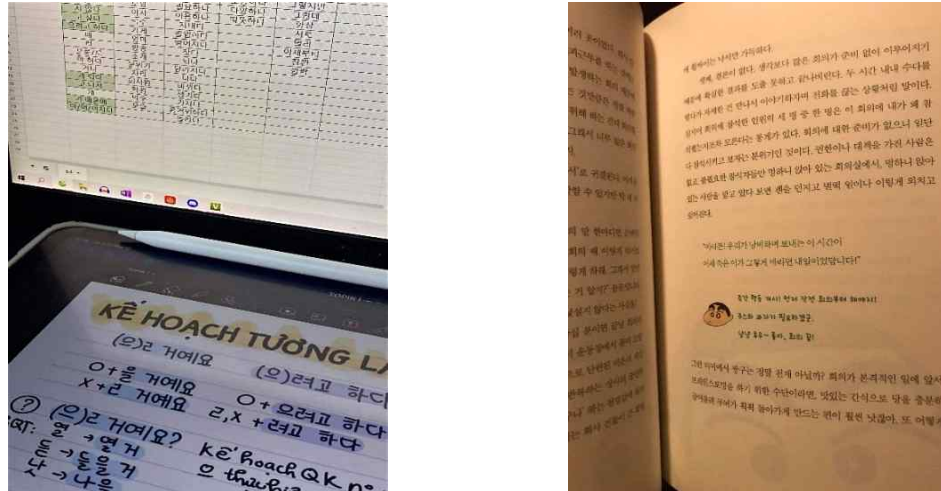
〈그림 6〉 한국어는 어렵고 지루하다



처음 나에게 한국어는 내가 한국에 살고 있었기 꼭 필요한 것이었다. 하지만 한국어를 접하고 나니 한국어에는 아무나 배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루하루 매일 익히고, 평생 배워야 할 언어이며, 또한 한국어에는 흥미롭고 풍부하고 다양한 것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매일 조금씩 배우려고 노력하고, 나날이 발전하고,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는 변화를 깨닫는 것이 이제는 나에게 기쁨이다. (참여자 1)

■ 한국어와 친구가 되고 싶어

〈그림 7〉 매일 단어를 외운다(왼쪽) 재미있는 한국어(오른쪽)



나는 한국어가 결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매일 조금씩 시간을 내어 공부하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수업이나 한국에서의 생활도 더 잘하게 될 것이다. (참여자 2)

한국어는 나에게 꽤 이해하기 쉬운 언어이고 나는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재미있다. (참여자 5)

4) 나의 미래는

마지막 네 번째 대주제는 〈나의 미래는〉이다. 이 주제에서는 연구 참여자에게 성인이 된 후 또는 십 년 후, 또는 취업을한 후 등 미래의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지내게 될까 상상하도록 한 후 자신의 상상에 가장 부합하는 사진을 찍도록 하였다. 이주 이전 문화권의 정체성과 한국에서 살아가는 정체성과 관련하여 자신의 삶에 얼마나 주도적인지,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 긍정적인지, 아니면 부정적인지, 또는 염세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드러내도록 한 주제였다. 이 대주제 아래 하위 주제로는 첫 번째, 〈한국인으로 한국에서〉, 둘째, 〈높이 더 높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미래의 주인은 나〉 등 세 가지로 범주화하였는데, 이 주제와 관련하여 연구 참여자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표출하였다. 구체적 직업을 언급한 참여자도 있었다.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 간혹 소통의 부재가 스트레스로 누적되고, 그렇게 쌓인 스트레스의 화살이 본인 스스로를 향하게 하여 우울감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본 연구 참여자의 경우 그러한 서술은 보이지 않았다. 자신이 삶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나아기기를 기대하고 있고, 현재보다는 더 나은 미래가 자신 앞에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 표현이 다수였다. 〈나의 미래는〉 관련, 하위 주제별 내러티브 분석은 다음과 같다.

■ 한국인으로 한국에서

〈그림 8〉 밝고 예쁜 나의 미래



미래는 길고 다채로운 여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나의 미래를 한국에서 이루기로 결심했다. 또한 통역사의 꿈을 계속 추구하면서 나의 미래는 밝고 열정적일 것이라고 상상한다. 그 꿈을 이룰 수 있을까 두렵고 불안할 때가 있다. 그러나 미래를 위해 현재 내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현재 노력해야만 나의 미래가 밝을 수 있다는 것에 나는 두려움 없이 도전하려고 한다. 내가 말했듯 나의 미래는 화려하지만 내 미래는 또한 현재의 내가 누구인지에 달려 있다. (참여자 1)

■ 높이 더 높이

〈그림 9〉 행복한 나의 미래



나는 미래에 한국에서 가족, 친구들과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한국에서 많은 돈을 벌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여자 5)

■ 내 미래의 주인은 나

〈그림 10〉 아름다운 나의 미래(왼쪽) 지금보다 나은 나의 미래(두 번째)

내 스스로 문제 해결(세 번째와 마지막)



내 인생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나는 먼저 나에게 스스로 생각할 여지를 주고 그 다음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 내가 해결할 수 없다면 부모님, 친척,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하겠다. (참여자 2)

미래에 내가 삶의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나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자연 속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쪽을 택할 것이다. 풍경을 보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당면한 문제에 대한 개선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취미이기도 하다. (참여자 4)

앞으로의 계획, 특히 아름다운 한국에서의 미래에 대해 나는 많이 생각했다. 나는 한국어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 온 이후로 많은 언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딛고 더 성장하여 한국어통역사의 꿈을 내가 꼭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한다. (참여자 4)

미래의 한국 생활이 지금보다 더 나을 것 같다. 나는 생각이 깊어질 것이고, 나의 행동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자립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내가 하게 될 어떤 선택도 후회하고 싶지 않다. (참여자 2)

3. 연구의 제한점

먼저, 본 연구는 베트남 출신 중도입국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자를 구성하였기에 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중도입국청소년이 경험하는 일상의 삶을 전체적으로 대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밝힌다. 한국의 낮은 출산율과 초고속으로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 인구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은 물론 소수의 중도입국청소년 집단이 폭넓게 참여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중도입국청소년 자신들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어 포토보이스가 진행되었으므로 그들의 가족, 교사, 친구 등 연구의 독립성을 해소할 수 있는 촘촘한 대상 선정에서 충분하지 않았음을 인정한다. 중도입국청소년 주변의 지지 집단이 함께 참여하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면 좀 더 활발한 토의와 역동적인 스토리 표출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포토보이스 연구 방법을 활용한 질적 연구로 진행이 되었지만, 중도입국청소년의 일상생활 만족도, 갈등 해소 양식, 가족 지지, 친구 지지, 또는 사회적 지지의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양적 연구가 병행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및 양적 연구를 혼합하여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더 심층적인 탐구가 가능하기를 희망한다.

V. 결론

본 연구자는 이전 연구에서 지적되어온 중도입국청소년의 불안정한 정체성 및 새로운 가족 재구성으로 인한 보이지 않는 갈등, 그리고 두 가지 문화권과 두 언어를 습득해야 하는 특성으로 인한 한국어 능력 부족과 허약한 친구 네트워크에 주목하고, 이후 따라오는 공교육 진입의 실패로 인한 교육 공백 및 교육의 질 저하에 관심을 가지고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사진을 이용한 포토보이스 방법으로 중도입국 청소년의 실제 한국에서의 일상적 생활을 통한 삶의 모습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고, 둘째, 중도입국 청소년 개인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서 능동적인 의미 해석을 하고 있는지 여부였다. 이의 연구를 위해 삶의 기록이자 기억의 출발점 역할을 하는 <사진>을 활용하는 포토보이스 연구 방법을 선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한국에 거주 중이며, 현재-공교육이 아닌-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베트남 언어문화권 남녀, 중도입국청소년 다섯 명의 연구 참여자를 최종 선정하였고, 약 3개월에 걸친 모임과 토의를 통하여 연구 참여자가 직접 촬영 및 선정한 사진과 그들이 베트남어로 스토리를 모두 취합한 연구 자료를 3단계 텍스트 분석 기법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4가지 범주의 대주제를 찾았고, 그에 따른 9가지 하위 주제를 코딩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첫 번째, <나에게 한국에서의 생활은>과 관련된 주제에서는 일상의 생활에 불편함이 있는지, 어떤 시간이 가장 행복한 때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연구 참여자 거의 모두는 학교 생활 및 가족과 함께 하는 평범한 일상, 그리고 주말을 기다리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는 주말 자유시간에 한국에 거주 중인 또는 베트남에 살고 있는 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대주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에서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친구>의 존재를 필요로 함이 분석 결과 도출되었다. 오승환(2016)은 다문화 가족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요인 분석에서 친구로부터 차별을 받았을 때가 교사, 이웃, 또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차별을 받았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우울 유발의 영향 요인이 됨을 서술한다. 청소년기의 일반적 특성뿐 아니라 중도입국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친구의 존재와 친구에 대한 그리움은 좁게는 개인 또는 가정, 그리고 학교의 문제일 수 있으나, 더 큰 문화적 서클에서 보면 한국 사회가 풀어내어야 할 사회통합의 과제라고 판단한다.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베트남에서 만든 친구와의 추억이 현재 한국 생활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표현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세 번째 대주제인 <나와 한국어>에서도 친구를 언급하고 있다.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여 한국 사회에 자연스럽게 적응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 문제는 제도권 공교육 진입 장벽이 낮아져 정주 또래 학생과 어울리는 것이 이들의 한국어 습득에 훨씬 더 적절한 방법이라는 것을 관계자 대부분은 인지하고 있으나 법적, 제도적 틀만으로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 한국 사회통합의 취약 사각지대

이다. 마지막 대주제인 〈나의 미래는〉 관련 연구 참여자들은 긍정적이며, 희망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자신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표출하였다. 자신이 삶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현재보다는 더 나은 미래가 자신 앞에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 표현에서 당사자들의 준비는 끝났다는 분석을 하려고 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주변의 지지와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선한 영향력의 존재라는 판단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중도입국청소년은 연구 분석 결과 청소년기에 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성숙 과정 및 변화에 긍정적 포섭의 과정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들은 한국에는 좋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 믿고, 한국 사회에 더욱 잘 적응하기 위하여 열심히 학업에 충실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한 가지 아쉬운 분석 결과는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이자 정신적 원동력은 〈친구〉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한국에서의 추억보다는 베트남에서 쌓은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 및 결론을 바탕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중도입국청소년의 향후 한국 생활의 질 높은 삶을 위한, 그리고 친구 지지 및 사회적 지지망의 강화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제안할 사항은 중도입국청소년 대상 포토보이스 연구의 확대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 포토보이스 연구 방법 및 개인적 스토리텔링에 있어 참여는 능동적이었고, 이야기는 진솔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자기는 더 드러내고, 상대에 대한 또는 사회에 대한 방어벽은 낮추며 스스로 주체적으로 스토리를 전개해 나간 것 자체가 본 연구의 또다른 큰 성과였다. 본 연구의 경우 한국어 대신 이전 문화권 언어인 베트남어를 사용한 것과 연구 진행자와의 긴밀한 라포 형성이 장점으로 작용한 것이었으리라 판단된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 더 많은 연구자와 관련자가 다양한 구성원과 폭넓은 주제를 선정하여 포토보이스를 활용할 수 있으면 그 효과가 작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는 바이다. 중도입국청소년들이 구체적인 주제 아래 정기적인 포토보이스 모임에 참여할 수 있다면 한국 생활 적응 관련 정보 공유를 통한 한국 생활에서의 불안감 감소 효과 또는 실제 집단 참여 체험으로부터 얻어지는 스트레스 감소 효과를 누릴 수도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이와 함께 본 연구의 서론에서 언급한 사진 및 영상 작업을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 교육 및 전문가의 지원 또한 함께 동반된다면 영상 결과물의 창조와 함께 성취감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두 번째 제언은 위의 첫 번째 제안의 연장선에 있는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한국어 교수 학습의 제공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중한 가족과, 친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기본 장치가 언어이다.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공교육 진입에 실패하고 있다. 실패의 원인은 환경적, 맥락적 측면에서 다양하나 표면적 원인은 한국어 능력 부족이 가장 큰 이유이다. 특히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은 현재 대학의 어학당을 제외하고는 교육 지원이 전무한 현실이다. 이를 위해 한국어 교육 관련 정책에 변화가 시급하다. 먼저, 생활 한국어 교육과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먼저 다양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인적 자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교육 지원 체제 지원을 위한 행정력 지원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바이다. 마지막 제언은 다양한 성인 학습 프로그램을 중도

입국청소년에게도 확대,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중도입국청소년 대부분은 중등 교육의 대상이지만, 현재 한국의 중등교육 체계에서 이들에게 필요한 변화가 생기기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다. 국제 성인역량 조사(Program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PIACC) 한국 자료에 의하면 조사대상 24개 국가 중 한국은 전공과 취업의 불일치 발생률 약 50%로 1위이다. 학력과 직무의 미스 매치는 직무 관련 스킬 미스매치와 연관되어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류기락, 2014) 노동시장 성과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직무 관련 재교육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한국의 대학은 생존과 지속발전을 위해 학령기 학생은 물론 재직 중인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창조적 지식 근로자 양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평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남기영, 2016). 오드리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제4차 세계 성인 학습 및 교육 보고서(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2020) 많은 국가에서 장애인, 노인, 이주자 및 난민, 소수자 등 취약 계층의 성인 교육 참여가 저조함을 지적하며 성인 교육은 공정한 사회 건설에 꼭 필요한 공공재(public goods)임과 동시에 필수불가결한 수단임과 능동적 시민이 되는 핵심 자본임을 역설한다.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 나이는 중등 교육 대상이나, 공 교육에 진입하지 못하고 시간이 흐르면 곧 성인기로 들어가게 된다. 2022년 현재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거의 80%(OECD, 2013)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이들 중도입국청소년에게 대학 진학은 많은 경우 예외일 수 있다. 성인교육은 선 취업 후 학업을 하게 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이러한 성인학습이 중도입국청소년에게도 확대 개방된다면 대학 진학을 미루고 취업을 하는 경우 직무 능력을 포함한 양질의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권보람·최새은. 2022. “포토보이스를 통해 살펴본 코로나 시대 청소년의 일상생활”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60(2): pp. 211-230.
- 교육부. 2021. 기본교육통계자료. pp. 5-6. 교육부(미간행).
- 금명자 외. 2006. [다문화가정 청소년(혼혈청소년) 연구:사회적응 실태조사 및 고정관념 조사.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향은 외. 2016. [청소년복지론]. 정민사.
- 박은혜·심혜선·마닥마. 2018. “이주배경 청소년의 눈을 통해 바라본 사회통합의 의미와 방법 -포토보이스 방법의 적용.” 《한국가족복지학》 23(2): pp. 283-313.
- 법무부. 2021. 국가별 중도입국 지녀 통계. 2021년 12월. 법무부(미간행).
- 양계민. 2011. “중도입국 청소년의 실태 및 현황.” [중도입국청소년 지원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 pp. 99-11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미간행).
- 양혜진. 2015. “청소년 참여방식을 통한 학교 폭력의 의미와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접근 방법-포토보이스 방법론 적용.”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지》 19(2): pp. 57-71.
- 유비·김기현. 2015. “한국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진로 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한국사회복지학회》 67(1): pp. 5-29.
- 이병철·송다영. 2011.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3(4): pp. 131-154.
- 이재희·김기현·라미영. 2014.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의 눈을 통해 본 이주 후 초기 적응 경험:포토보이스 방법의 적용.” 《한국아동복지학》 45: pp. 103-130.
- 최윤. 2020. “포토보이스를 활용한 중증뇌병변장애 청년의 자립 의미에 관한 연구-아픔과 그리움을 안고 어른으로 홀로 서기.” 《생명연구》 55: 259-282.
- 최윤·이종교·강선경. 2020. “다문화 가족 청소년의 일상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인문사회 21》 11(1): pp. 1747-1762.
- Allen, Q. 2012. “Photographs and stories: ethics, benefits and dilemmas of using participant photography with Black middle-class male youth.” Qualitative Research, 12(4): 443-458.
- Wang, Caroline, and Burris, Marry Ann. 1997. “Photovoice: Concept, Methodology, and use for Participatory Needs Assessment.” Health Education & Behavior 24: 369-387.

연합뉴스. 2022. "Acclaimed Franco-Malian director Ladj Ly opens free film school in Senegal." ABC News World Headlines, January 22, 2022. (Available from <http://www.rfi.fr/en/africa/20220122-acclaimed-franco-malian-director-ladj-ly-opens-free-film-school-in-senegal-kourtrajm%C3%A9>. Internet; accessed December 1, 2022).

Photovoice on the Daily Life and Future Wishes of the Immigrated Youth in Korea

Kim, Myokyung · Ha, Jin I*

Abstract

Unlike multicultural adolescents born in Korea, migration youth refer to those living in Korea with a migration background. After moving to Korea, they must first become members of a new family and at the same time acquire the languages of both cultures. This study began with the interest of hoping that they will grow into healthy global citizens. Firs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actual life of the migration youth through their daily lives in Korea through photovoice methods using photos, and second, to see what qualitative meaning individual migration youth are interpreting in their surrounding environment. For this study, among eight, five Vietnamese language and culture men and women living in Korea and attending alternative schools were finally selected. After that, the research topic was determined through meetings and discussions for about three months, and the whole photovoice research was conducted. As a result, four categories of major topics were found, and nine sub-topics were coded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quality of life of migration youth living in Korea in the future, and to support friends and strengthen social support networks.

Keywords: adolescents; migration youth; photo-voice; daily life

투 고 일 : 2023. 05. 16.

수 정 일 : 2023. 06. 02.

확 정 일 : 2023. 06. 05.

* Jeonnam National University

한국이민학

2023년 제10권 제1호

ISSN 2093-6044

부록

■ 원고 제출 및 게재 절차

■ 원고 작성지침

■ 한국이민학회 임원명단

《한국이민학》 원고 제출 및 게재 절차

1. 《한국이민학》에 게재할 논문의 주제는 한국 및 세계의 이민 관련 이론적·경험적 연구여야 하며, 논문투고자의 자격은 회원으로 제한한다.
2. 논문의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제출된 논문은 국내외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현재 게재를 심의 중이어서는 안 된다. 단, 외국어로 작성되어 저명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로 번역하여 실을 수 있다.
3. 논문 제출 시 원고는 워드프로세서(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하여 논문투고시스템(<https://dbpiaone.com/kimsa/index.do>)에 회원가입 후 논문을 투고해야 한다.
4. 제출된 논문은 오·탈자의 수정을 제외한 내용상의 편집과 수정을 하지 않고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논문투고자가 진다.
5.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6. 국문원고는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 분량으로 하며(원칙적으로 분량 초과는 허용하지 않으며, 편집위원회의 허가 하에 분량이 초과될 경우 해당 매수에 상응하는 별도 비용을 부과한다), 영문원고는 7,000단어를 넘지 않아야 한다.
7. 저자는 제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며, 공동저자는 논문작성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순서대로 기재한다. 두 사람 이상의 복수 저자일 경우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표기한다.
8.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부위원장 및 해당 전공의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논문의 원고를 해당 분야의 편집위원에게 할당하고, 심사위원을 추천하도록 한다.
9. 해당 분야 편집위원은 할당된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실적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추천한다.
10. 편집위원장은 해당 분야 편집위원이 추천한 심사위원 중 3인을 선정하여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단, 편집위원회가 소집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11. 심사위원은 투고자의 출신학교, 소속기관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12. 논문의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게재가”, “부분수정”, “근본수정”, “게재불가” 중 하나의 심사결과와 관련 의견을 작성하여, 의뢰받은 기간(통상 2주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분수정이란 수정 후 게재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의미하고, 근본수정이란 수정 후 재심사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의미한다.

13. 위촉받은 심사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3주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 분야 편집위원과 협의해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14. 논문투고자와 심사위원은 각자에 대해 익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5. 심사위원은 다음 각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논문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논문의 체계와 완성도
2. 연구내용의 독창성과 창의성
3. 연구내용의 학술적·정책적 기여도
4. 연구 방법의 적합성
5. 기타 편집위원회가 정한 사항

16. 논문게재의 판정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심사자 갑	심사자 을	심사자 병	심사결과
가	가	가	게재가
가	가	수정	
가	가	부	
가	수정	수정	수정 후 게재
수정	수정	수정	
가	수정	부	수정 후 재심
수정	수정	부	
가	부	부	게재불가
수정	부	부	
부	부	부	

17. 해당 분야 편집위원은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논문게재 판정 기준에 따라 여부를 판정하고 이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18. 논문게재 판정 기준에 따라 “수정 후 게재” 판정을 통보받은 논문투고자는 기한 내에 수정·보완된 논문과 수정 요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투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논문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19. 수정·보완된 논문의 최종 게재 여부는 해당 편집위원의 판단을 기초로 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편집위원의 판단을 기초로 하여 편집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20. 논문게재 판정 기준에 따라 “재심”의 판정을 통보받은 논문투고자는 기한 내에 수정·보완된 논문과 수정 요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투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논문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21. 수정·보완된 논문의 재심은 초심에서 부분수정, 근본수정 또는 부의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들에게 맡긴다.
22. 재심을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기간(통상 1주일) 이내에 “게재가” 또는 “게재불가”의 재심 결과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3. 수정·보완된 논문의 재심 결과, 초심에서 “게재가”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을 포함하여 심사위원의 2인 이상이 “게재가”로 평가하면 논문게재를 확정한다.
24. “게재불가” 판정받은 원고는 논문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재신청”임을 명기하여 다시 기고할 수 있으며, 이때 3인의 심사위원 중 1인은 애초의 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한 위원으로 한다.
25. 논문투고자는 심사 과정이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상세한 사유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26. 편집위원회는 이의 제기 사유를 검토한 후 재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27. 재심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사유를 이의제기자에게 통보한다.
28. 재심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한국이민학 발행규정에 의거, 새로운 투고논문과 동일한 심사 과정을 거치게 한다. 이때 심사위원은 원래 심사위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한다.
29. 편집위원회는 표절이란 의견이 제시되고 표절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할 때 심사를 중단한다.
30. 이때 편집위원회는 표절 지적 내용과 관련 자료를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한다.
31. 논문투고자는 다툼이 해결되었음을 증빙하는 내용의 자료를 첨부하여 재투고할 수 있다.
32.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심사 및 게재와 논문투고자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33. 《한국이민학》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한국이민학회에 귀속한다.

34. 논문투고자는 게재된 논문을 다른 학술지 또는 발간물 등에 등재하거나 활용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한국이민학》에 게재된 논문임을 밝혀야 한다.
35. 논문게재예정증명 또는 논문게재증명은 각각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후 또는 《한국이민학》이 발간된 후 논문투고자의 요청에 따라 발급한다.
36. 《한국이민학》의 발간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한국이민학》 원고 작성지침

1. 원고 논문은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A4 용지에 단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2. 원고의 분량은 각주, 참고문헌, 도표 등을 포함하여 25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연구단편(research notes)은 10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4.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제목표지(논문제목·저자이름·요약문·핵심단어), 본문, 각주, 참고문헌, 표, 그림, 부록, 저자소개의 순으로 작성한다. 아울러, 영문 또는 국문으로 논문제목, 저자이름, 요약문(Abstract), 핵심단어(Keywords)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5. 국문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만 한자를 괄호 속에 함께 쓰도록 하고, 기타의 외래어는 첫 번에 한하여 한글 원문 뒤에 괄호 속에 함께 쓴다.
6. 원고의 제목표지에는 논문의 제목, 저자의 이름, 소속,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저자가 두 사람 이상인 공동연구의 경우 중간점(.)을 사용하여 옆으로 나란히 기재한다. 감사의 글, 연구비 지원기관, 교신저자 등은 *표를 하여 같은 면에 각주로 기재한다.
7. 논문의 국문 핵심단어와 영문 핵심단어는 3-5개 제시한다.
8. 국문과 영문 요약문(연구단편 포함)은 200자 원고지 5장 또는 A4 용지 단면 1/2장 이내로 작성한다.
9. 본문에서는 논문의 제목을 본문의 첫 장에 기재한다. 논문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논문 심사위원이 저자를 알아볼 수 있는 서술은 삼가야 한다. 세부적인 본문 서술 요령은 다음과 같다.
 - 1) 본문은 내용의 구성을 명료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3단계 정도의 소제목을 추천한다. 소제목은 I., 1., 1), (1), ① 형식으로 단계적으로 구성한다.
 - 2) 저술 인용방식은 저자의 이름과 저서의 출판 연도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인용 페이지를 기재하도록 한다. 같은 저술을 되풀이 인용할 때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 구체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다.
 - (1) 저자의 이름이 본문에 언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출판 연도를 괄호 안에 제시하고 본문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름과 출판 연도를 모두 괄호 안에 제시한다.
예 1, “..... 설동훈(1999: 10)”; 예 2, “..... (설동훈, 1999: 10)”
 - (2) 저자의 이름이 외래어인 경우, 한글로 쓰고 원명은 괄호 속에 담는다.
예, “..... 그라노벤테르(Granovetter, 1985)”
 - (3) 2인 공동저술일 경우, 두 사람의 이름을 모두 제시한다.
예, “..... (유길상·이규용, 2001)”
 - (4) 3인 이상의 공동저술일 경우 첫 번째 인용에서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제시하고 그 이후부

터는 “외”를 사용한다.

예, “..... (이규용·유길상·이해춘·설동훈·박성재, 2007)”과 그 이후 “..... (이규용 외, 2007)”

- (5) 출판 예정인 저술을 인용할 때는 “출판예정”(또는 “forthcoming”)을 부기하고, 미간행물 일 경우에는 “미간행”(또는 “unpublished”)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예, “..... (Gereffi, Spener and Bair, 2002 forthcoming)” 또는 “..... (외국인노동자 대책협의회, 2000 미간행)”

10.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한국어 문헌은 저자 이름의 가나다 순으로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외래어 문헌을 알파벳 순으로 제시한다. 단, 중국어 및 일본어 저자명은 괄호 속에 영문 또는 한글 표기를 한다. 다음은 참고문헌 작성 원칙에 따른 예다.

1) 도서

설동훈. 1999.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유길상·이규용. 2001.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유길상·이해춘·설동훈·박성재. 2007.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및 중장기 관리체계 개선 방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Lin, Nan. 2002.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Cornelius, Wayne A., Takeyuki Tsuda, Philip L. Martin, and James F. Hollifield (eds.). 2004. Controlling Immigration: A Global Perspective, 2nd Editio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Gereffi, Gary, David Spener, and Jennifer Bair (eds.). 2002 (forthcoming). Free Trade and Uneven Development: The North American Apparel Industry After NAFTA. Philadelphia, PA: Temple University Press.

2) 학술지 게재 논문

박경태. 2001. “사회적 자본으로서 NGO의 역할과 아시아 이주노동자 문제: 필리핀과 홍콩의 NGO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52(겨울): 184-205.

설동훈·김운태. 2004. “대만의 외국인노동자 고용관리체계.” 《중소연구》 28(3): 69-117.

이혜경·정기선·이정환·설동훈. 2002. “국내외 한국기업의 외국인력 관리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식 관리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6(3): 47-77.

Granovetter, Mark. 1985.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 The Problem of Embedded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3): 481-510.

Brown, Jacqueline Johnson, and Peter H. Reingen. 1987. “Social Ties and Word-of-Mouth Referral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4: 350-362.

3) 단행본 수록 논문

이철우. 2004. “피로써 구별되는 국민들: 혼혈인과 한국사회.” 정인섭 편,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 박영사. pp. 233-261.

町村敬志(마치무라 타카시). 1992. “グローバル化と世界都市形成.” 梶田孝道 編, 『国際社会学: 国家を超える現象をどうとらえるか』. 名古屋: 名古屋大学出版会. pp. 114-133.

森田桐郎(Morita, Kirirora). 1987. “資本主義の世界的展開と国際労働力移動: 歴史的·理論的研

究.” 森田桐郎 編, 『国際労働力移動』.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pp. 1-54.

Bourdieu, Pierre. 1986. “The Forms of Capital.” Pp. 241-258 i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edited by John G. Richardson. Westport, CT: Greenwood Press.

4) 번역도서

伊東順子(Ito, Junko). 2001. 『病としての韓国ナショナリズム』. 東京: 洋泉社. (김혜숙 역. 2002. 『한국인은 좋아도 한국민족은 싫다』. 개마고원).

Castells, Manuel. 1989. The Informational City: Information Technology, Economic Restructuring, and the Urban-Regional Process. Cambridge, MA: Basil Blackwell. (최병두 역. 2001. 『정보도시: 정보기술의 정치경제학』. 한울).

Weber, Max. 1946.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translated and edited by Hans H. Gerth and C. Wright Mill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5) 번역논문

Weber, Max. 1893. “Die landliche Arbeitsverfassung.” Schriften des Sozialpolitik 58: 62-86. (임영일·차명수·이상률 역. 1991. “농업노동제도.” 『막스 베버 선집』. 까치. pp. 289-314).

Weber, Max. 1946[1919]. “Politics as a Vocation.” Pp. 77-128 in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translated and edited by Hans H. Gerth and C. Wright Mill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6) 미간행 학위논문

최홍엽. 1997.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미간행).

Lee, Young Hwan. 1991. “The Effects of Individual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on Labor Market Outcomes: A Case Study of Korea.”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Department of Sociology, Graduate School, Stanford University.

7) 학술회의 발표논문과 미간행 자료

설동훈. 2006. “이주노동자 자녀의 권리와 생활실태.” 『한국아동권리학회 2006년 춘계학술대회: 아동 소외의 현장 —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한국아동권리학회. pp. 54-81. (숙명여자대학교 제2창학관 켄마홀, 2006.5.19)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00.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인권백서: 인권침해의 현장보고』.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미간행).

Schrecker, Ted. 1996. “The Borderless World and the Walled City: Metaphors for North American Social and Economic Life in the Twenty-First Century.” Paper Presented at a workshop a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Vancouver, BC, Canada, March 1996. (Unpublished).

8) 인터넷 자료

서울특별시. 2001. 『서울 거주 외국인에 대한 여론조사』. (<http://www.metro.seoul.kr/kor2000/research/total/down/11/11-12.pdf>에서 가용. 인터넷; 2002년 7월 31일 접속).

U.S. Department of State. 2001.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2001. (Available from <http://www.state.gov/documents/organization/4107.pdf>. Internet; accessed February 7, 2002).

ABCNEWS. 1998. "Women Forced to Work: Forced Abortions Are Conducted on U.S. Territory." ABC News World Headlines, April 1, 1998. (Available from <http://www.abcnews.com/sections/world/DailyNews/saipan0331.html>. Internet; accessed March 25, 1998).

9) 동일 저자의 같은 해 저술

설동훈. 2002a. "국내 재중동포 노동자: 재외동포인가, 외국인인가?" 《동향과 전망》 52(봄): 200-223.

_____. 2002b.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현대판 노예인가, 외국인 용병인가?" 《당대비평》 6(1): 53-68.

Petras, Elizabeth McLean. 1980a. "The Role of National Boundaries in a Cross-National Labour Market."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4(2): 157-195.

_____. 1980b. "Towards a Theory of International Migration: The New Division of Labor." Pp. 439-449 in Sourcebook on the New Immigration: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dited by Roy Simon Bryce-Laporte.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Books.

11. 표와 그림은 별지에 작성하고, 제목은 표와 그림의 위에 적는다. 주는 "주:"라고 시작하고, 출처는 "자료:"로 시작하여 표와 그림의 아래에 적는다.

12. 이 요강에 미비된 기타 사항은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발행한 《한국이민학》 제7권 제2호의 관례에 따른다.

한국이민학회 임원명단

학 회 장 한건수(강원대학교)

부 회 장 신지원(전남대학교) 이병하(서울시립대학교) 정은주(인천대학교)

조영희(IOM이민정책연구원)

총 무 위 원 장 최원근(한국외국어대학교)

총 무 이 사 김철효(경상국립대학교) 임시연(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연 구 위 원 장 한준성(강릉원주대학교)

연 구 이 사 고재훈(전북대학교) 노고운(전남대학교) 송영호(한양대학교)

이충훈(전북대학교) 최서리(IOM이민정책연구원)

편 집 위 원 장 송영훈(강원대학교)

편 집 이 사 문경연(광운대학교) 한승준(서울여자대학교)

국 제 이 사 김종훈(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어해교육원) 박서연(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한승미(연세대학교)

대외협력이사 곽재석(이주동포정책연구소) 김태희(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

이완(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이창원(IOM이민정책연구원) 장흔성(경북다문화가족센터)

최영일(김포시외국인주민센터)

감 사 박우(한성대학교) 조영관(법무법인 덕수)

《한국이민학》 제10권 제1호(2023)

인 쇄 일	2023년 6월 30일
발 행 일	2023년 6월 30일
발 행 처	사단법인 한국이민학회
발 행 인	한 건 수
사 무 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301호
전 화	033-250-6874
전자우편	kimsaeditor@gmail.com
홈페이지	www.kimanet.org
인 쇄 처	등불

ISSN 2093-6044

